청년민주시민
인권역량 강화과정

자 료 집

□일시 : 2021년 7월 7일(수) ~ 오후 2시~5시

□장소 : 인천민주화운동센터

경인교육대학교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청년민주시민·인권역량 강화과정

- 강 좌 안 내 -

○ 일시 : 2021년 7월 7일(수) ~ 8월 11일(수) 오후 2시~ 5시 , 총 6회

○ 장소 : 인천민주화운동센터 3층 교육실(상황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교육)

○ 대상 :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이 있는 청년 및 시민 선착순 20명 내외

○ 신청 : 인천민주화운동센터 홈페이지(https://idph.kr) 신청서 다운받아 메일(idph@daum.net)이나 팩스(032-862-5352) 접수

○ 접수 : 2021년 6월 16일~6월 30일 6시까지

○ 문의 : 032-862-5353 (담당자-정윤미)

>>> 청년민주시민·인권역량 강화과정 <<<

7/7(수)	**인권, 생활에 물들다**	김만권 (경희대학술연구교수/정치철학자)
7/14(수)	**기후위기와 코로나로 본 환경문제**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7/21(수)	**모두를 위한 세상보기**	김성미경(인천여성의전화)
7/28(수)	**교육으로 민주주의하기**	김용진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8/4(수)	**이준석을 통해 본 청년정치**	오세제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8/11(수)	**인천 민주주의 역사 톺아보기**	이우재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와 강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경인교육대학교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차 례

청년민주시민 인권역량 강화과정

◆ **인권과 경청** ---------- 01
김만권(경희대 학술연구교수/정치철학자)

◆ **기후위기와 코로나로 본 환경문제** ---------- 25
박주희(인천녹색연합)

◆ **모두를 위한 세상보기** ---------- 43
김성미경(인천여성의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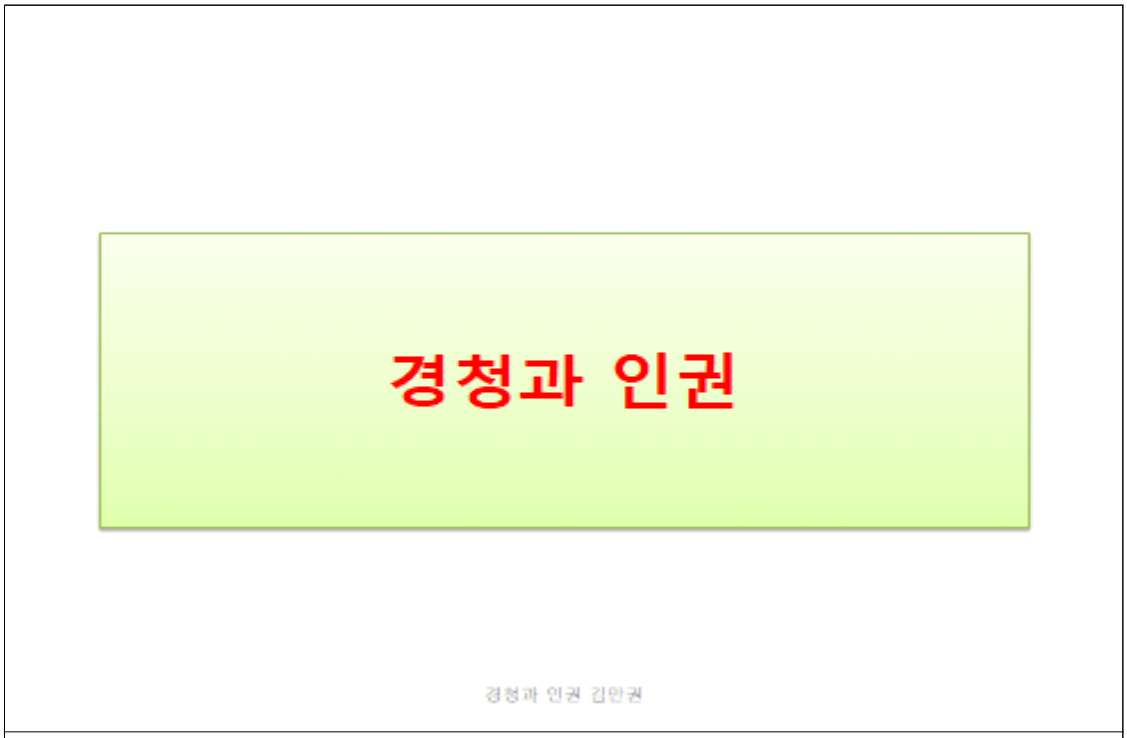
◆ **교육으로 민주주의하기** ---------- 62
김용진(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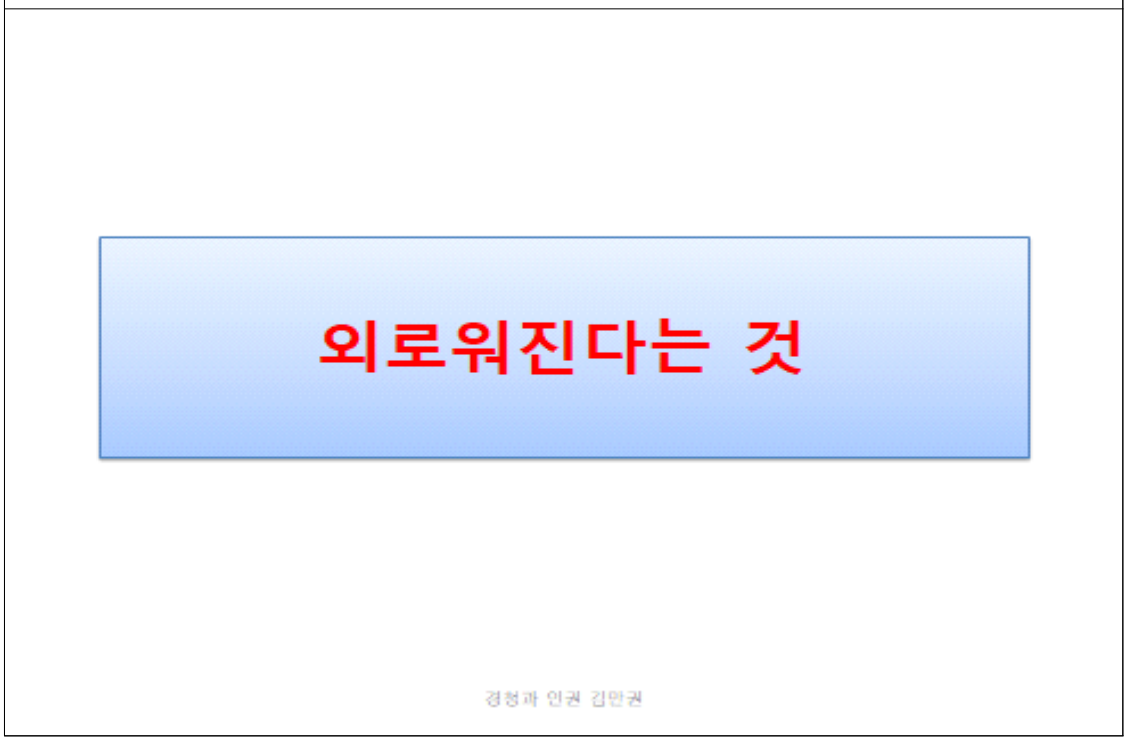
◆ **이준석을 통해 본 청년 정치** ---------- 85
오세제(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인천 민주주의 역사 톺아보기** ---------- 91
이우재(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권과 경청

김만권 (경희대 학술연구교수/정치철학자)





배경

경청과 인권 김만권

영국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하다

- 2018년 1월 영국에서 최초로 외로움부 장관이 임명됨
- "외로움 문제를 담당하는 장관이 영국에 생겼다. **사회적 단절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에 따른 것**이다."

경청과 인권 김만권

영국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하다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트레이시 크라우치(사진) 체육 및 시민사회 장관을 **외로움 문제를 담당할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으로 겸직 임명했다."

경청과 인권 김만권

‘얼마나 외로운가’

- “지난해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외로움[원문에는 고독으로 표현]으로 인한 고통을 겪는 이들은 영국에서만 9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메이 총리는 “**외로움은 현대 삶의 슬픈 현실**”이라며 “**노인이나 돌봄이 필요한 이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이 자기 생각을 나누지 못하고 지내는 것을 막기 위해 모두가 나서자**”고 제안했다.”

누가 외로운가

- “보고서에 따르면 **외로움을 호소하는 이들은 노인 뿐 아니라 젊은이들도 많았으며, 어린이와 새로 부모가 된 이들, 장애인, 난민 등 다양했다.**”

영국 자살예방장관을 임명하다

- **2018년 10월에는 자살예방장관까지 임명한 영국.**
- **왜 자살 예방장관을 임명했을까?**

높아지는 자살률

- "외로움 문제를 담당하는 장관에 이어 자살 예방을 주도할 장관이 영국에 생겼다. '**자살 예방 장관**'은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인디펜던트가 소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2017년) 10대 자살률이 2010년에 비해 67% 가량 높아져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청과 인권 김만권

높아진 자살률

- "BBC 등은 10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재키 도일-프라이스 건강 장관을 자살 예방 장관(Minister for Suicide Prevention)으로 겸직 발령**을 내렸다"며 "**이는 정신 건강 문제에 시달리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 **현재 잉글랜드에서만 매년 4500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고, 45세 이하 연령에서는 자살이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경청과 인권 김만권

우리나라는 어떨까

-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 사람들이 외로워진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외로워지고 있는 것일까?**
- 문제는 **영국과 달리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경청과 인권 김만권

혼살혼죽

- "지난 4일 오후 4시 18분쯤 부산 사하구 감천동의 한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집주인 한모(4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주민신고로 119구조대가 한씨의 주검을 발견했다. 검안의는 시신의 부패 상태로 미뤄 한씨가 보름 전쯤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경비원으로 일하던 한씨는 3년 전 실직한 이후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았다. 6개월 전 모친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고부터는 혼자 생활해 왔다.우울증·알코올중독이 있던 한씨가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청과 인권 김만권

고독사

- "최근 자주 발생하는 '고독사(孤獨死)'의 한 사례다. **고독사는 가족·친척·사회에서 단절된 채 홀로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음에 이르러 오랫동안 시신이 방치된 경우를 말한다. 법률·행정용어가 아닌 사회 통념상 용어다. 전문가들은 고령화·핵가족화·개인주의화 등을 그 원인으로 분석**한다."

경청과 인권 김만권

혼자 살다 혼자 죽다

- "그러나 과거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집중됐던 고독사는 **최근 '1인 가구'가 늘면서 청·중·장년층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혼자 외롭게 살다 혼자 쓸쓸히 죽어가는 '혼살혼죽' 현상이 늘고 있는 셈이다.**"
  [출처: 중앙일보] 젊어지는 고독사 … 한 해 사망 1700명 중 46%가 4050

경청과 인권 김만권

통계 없는 죽음

- "고독사는 최근 **전국적으로 1년에 1000여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고령화 사회'일 뿐 아니라 이미 '고독사 사회'에 진입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에 통계조차 없다. 고독사를 '통계 없는 죽음'이라 부르는 이유다.**"

경청과 인권 김만권

고독[외로움]은 사인이 될 수 없다

- **"정부가 심장질환 등 사망 원인별로 사망자 통계를 잡지만 의료적으로 '고독'은 사인이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통계가 없는 만큼 고독사의 정확한 개념도 정의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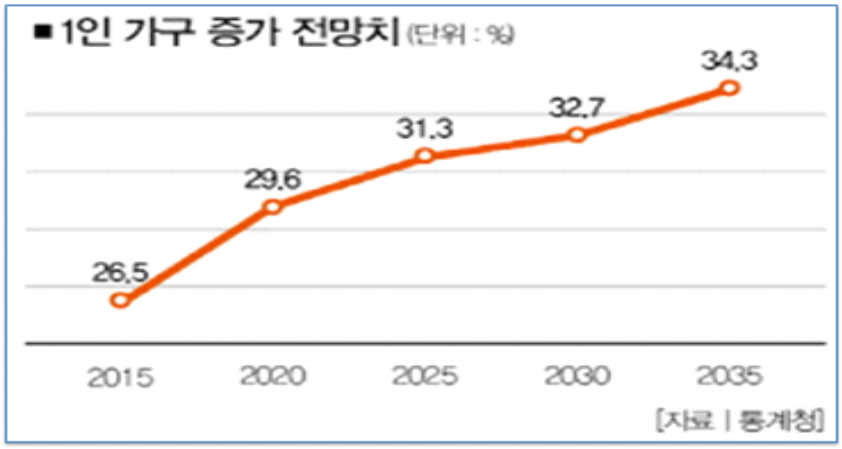
경청과 인권 김만권

늘어나는 (청년) 1인 가구

- "1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청년층 1인 가구의 주거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이 실시한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홀로 사는 1인 가구는 전체 1천699.2만 가구 중 539.8만 가구(27.2%)로 집계**됐다.
- **20~30대 청년층 1인 가구가 전국적으로 188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10가구 중 1가구가 청년층 1인 가구인 셈으로, 최근 6년 사이 32만4천가구가 늘어났다.**"

경청과 인권 김만권

1인 가구 증가 예상



경청과 인권 김만권

무연고사: 빈곤과 고독사

- "고독사도 **문제지만 시신을 인수할 연고자가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시신의 인수를 거부하는 무연고 사망, 즉 무연사(無緣死)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화장 처리하는 이들 **무연고 사망자는 장례 치를 비용을 남기지 못할 만큼 빈곤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고독·무연사는 홀로 살다가 홀로 죽는 '혼살혼죽'시대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경청과 인권 김만권

520만 '1인가구' 절반이 '신빈곤층'

- "나홀로 사는 1인가구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6년] **1인가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가구유형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1인가구의 빈곤율이 다인가구 빈곤율의 4배**에 이르는 등 1인가구가 소득, 주거, 건강 등의 측면에서 '신취약계층'이 될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겨레)

경청과 인권 김만권

가난하면 외로워진다?

- "1인가구의 급증과 함께 '빈곤한' 1인가구 비중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15 빈곤통계연보'를 보면, 1인가구의 상대빈곤율(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아래인 가구)은 2006년 40.6%에서 2014년 47.6%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1인가구를 제외한 가구의 상대빈곤율은 13.7%에서 12.8%로 낮아졌다. 전반적으로 '나홀로' 사는 가구가 빈곤 위험이 높은 현실을 드러낸다."

우리 시대 새로운 전염병

- "미국 의무감(醫務監)을 지낸 비벡 머시는 자신이 **평생 의사로 일하며 맞닥뜨린 가장 흔한 병은 심장병도, 당뇨도 아니라 외로움**이었다."

왜 외로움인가?

외롭다는 말

- **외롭다는 말은 16세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정도의 의미**였다고 함. **이웃에서 멀리 떨어진 곳, 혹은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
- 1674년 박물학자 존 레이가 이 말을 처음 정의했는데, "**이웃에서 멀리 떨어진 곳, 혹은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이라고 함

외롭다는 말

- 16-17세기 영국 사람들은 사회에서 멀리 떨어져 산다는 것을 **사회가 제공하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
- 외딴곳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행여 그 사람이 당신을 해치려 할 때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

실낙원의 악마

- 존 밀턴이 1667년 발표한 서사시「실낙원」속 악마가 영국 문학작품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첫 번째 등장인물이라고 함.
- **에덴동산에 있는 이브를 유혹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악마**는 **자기가 사는 지옥을 벗어나 외로운 걸음을 내딛게 됨**

실낙원의 악마

- 밀턴은 악마가 내디딘 지옥과 에덴동산 사이에 있는 궁극의 황야가 지금껏 그 어떤 천사도 발을 밟아본 적 없는 곳이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자신이 처한 상황이 위태롭다고 하는 악마의 말 속에 외로움이 묻어남.
- 외로움은 결국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곳, 다시 말해 악마조차 스스로 위태롭다고 느끼게 만드는 감정

오늘날 외롭다는 의미

- 외로움의 문제는 도시로 옮겨왔음
- 오늘날의 외로움은 내 주변에 사람이 없지도 않다는 것
- 현대적 의미의 외로움이란 "다른 이들과 가까이할 수 없다는 감정이자 심리 상태" 입니다.
- 실제로 다른 사람과의 물리적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술시대의 외롭다는 의미

- 네트워크 기술시대는 사실상 과잉접속의 시대라는 의미
- 하지만 그 속에서도 외로운 우리.
- 늘 온라인에 접속해 우리는 왜 그래도 외로운 것일까?

자아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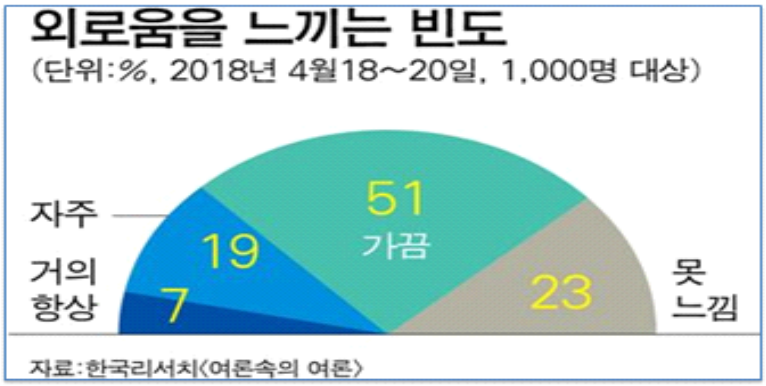
- 외로움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자아 상실.
- 이 자아는 고독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자아의 정체성은 나와 동등한, 믿을 수 있고 믿을만한 가치가 있는 동료들에 의해서만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아 상실은 자신과 세계를 동시에 상실하는 결과를 낳게 됨

대한민국 얼마나 외로운가

4명 중 1명이 항상 외롭다

- 한국리서치에서 2018년 4월 실시한 만 19세 이상 전국 1,000명 웹조사 결과를 보면,
- 응답자의 7%가 지난 한달 간 '거의 항상' 외로움을 느꼈다고 답했고, 19%는 '자주' 느끼고 있다고 답해, 4명 중 1명은 상시적인 외로움에 노출되어 있음을 볼 수 있음.
- 나머지 51%도 '가끔'이지만 외로움을 느꼈다고 답했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했다.

외로움을 느끼는 빈도



경청과 인권 김만권

외로움의 폐해

- 외로움의 폐해는 우선, 개인의 근심 걱정과 사회 병리를 유발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피폐화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동한다는 점.**
- **외로움을 자주 또는 거의 항상 느끼는 사람들은** 가끔 느끼거나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걱정' '무력감' '짜증'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 체험이 4, 5배 높게 나타남.**

경청과 인권 김만권

외로움은 행복을 잠식하고

- "반대로 외로움은 행복도를 크게 잠식하는 요인이다. **외로움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집단에서는 행복 체감 비율이 68%**였지만, 외로움을 가끔 느낀다는 응답자에서는 48%로 차이가 난다.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는 응답층에서는 26%, **거의 항상 느낀다는 응답층에서는 18%만이 행복감을 느낀다고 답해 외로움과 행복의 체감도는 반비례 역관계**임을 보여 준다."

경청과 인권 김만권

대한민국, 젊을수록 외롭다

- 외로움 체감도에 있어 성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세대별로는 **젊은 세대일수록 외로움을 체감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경청과 인권 김만권

경청과 인권 김만권

왜 청년들은 외로울까?

- **1인 가구 구성원이 외로움을 빈번하게 느끼는 비율이 45%(항상 19%+자주 27%)나 되지만**, 2인 가구 이상에서는 21~24% 수준에 그쳤다. **청년층에서 1인 분거가구가 증가하고, 미혼 및 결혼을 미루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젊은층에서 외로움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셈**이다.

경청과 인권 김만권

소득 밑바닥 계층이 더 외롭다

- 이 조사는 또한 소득 수준이 밑바닥인 계층이 외로움을 더 느끼는 것도 보여줌
- 월 소득 200만원 이하가 가장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계층인데, **2017년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2225만원임을 주목해야 함**

빈곤과 외로움

외로움 속에서

-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최하층 계급"인데, "최하층 계급"은 공동체가 아니라 범주이다**. 이 범주에 속한 이들이 공유한 유일한 특징은, 그들이 세상에서 배제된 채 따로 존재한다는 오명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이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지고 인정되는 조건과 표식을 모두 빼앗긴다는 뜻이다.

가난해지면 외로워진다

- 가난한 자들이 말할 수 있는 공동체란 애초에 없었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실패와 고통에 대해 개별적으로 쏟아지는 비난을 꿋꿋하게 감수함으로써 혼자서 고통을 견뎌낸다.

경청과 인권 김만권

가난한 이들의 삶은 황무지...

- 밑바닥 계급은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금지된 지역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소름끼치는 황무지와 같다...일단 들어서면 되돌릴 수 없다. 일단 들어서는 순간 엄청난 혐오의 시선을 받는다. 밑바닥 계급은 불행의 징조이기 때문이다.

경청과 인권 김만권

통제할 수 없기에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이들

- "이해한다"는 말의 의미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다"는 뜻인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무능함과 무력함을 느끼며 불행해 한다.
- 가난한 이들의 삶은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모르는 삶이기에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며, 밑바닥 계급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

경청과 인권 김만권

두려움과 분노의 대상이 된 굴욕스런 존재들

- **불행하다는 것은 아무 때나 굴욕감을 느낀다는 뜻이지만, '운명'이 개인적으로 덮칠 때는 더 크게 느껴진다..."분명히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통찰력 있고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란 생각에 휩싸여 살게 된다.**
- 이들은 남은 조금이라도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가난한 사람들의 운명 뒤에 자신을 숨긴다.

경희과 인권 김만권

굴욕에서 비하와 혐오로

- **굴욕으로 생긴 수치심은 자기비하와 자기혐오를 불러온다.** 이런 감정은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깨닫는 순간 우리를 압도해 버린다.
- **자기혐오는 계속되면 절대 견뎌낼 수 없는 끔찍한 감정으로, 분출할 배출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배출구를 찾아야 한다. 그 배출구는 우리의 내적 자아에서 멀리 떨어진 대상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스스로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망가지기 때문이다.

경희과 인권 김만권

분풀이 대상

- **굴욕감을 느끼는 우리들은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풀어버릴 대상이 필요하다.** 비록 대상이 누구인지 그 방향조차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는 받았던 고통을 반드시 설욕해야 한다. **하지만 분풀이 대상은 무작위로 선정된다.** 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데, 그들은 누군가의 몰락과 굴욕, 고통에 가장 큰 책임을 진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다.

경희과 인권 김만권

혐오의 악순환: 미움받게 되는 이들

- 이로 인해 이들은 미움받게 되는데,
- 사람들은 이 세상이 증오에서 자유로워지길 바라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한다고 주장하게 된다.

권리를 가질 권리

권리(들)를 가질 권리

- 아렌트는 인권의 문제점을 고찰해 '권리를 가질 권리(right to have rights)'를 제시.
- 이는 특정한 종류의 공동체에 속할 권리로서 국제 정세에 따라 수백만의 사람들이 때로는 잃거나 다시 얻게 되는 종류의 권리가 아님

개인이 공동체와 분리될 때

- 개인이 공동체에서 분리되었을 때 전적으로 사적인 영역만이 남게 됨.
- **행동, 생각 모두 전정치적인 사적 영역(private sphere)에 가두어지기에 진정한 행위의 자유란 있을 수 없고**
- **공적인 영역(public sphere)에서 가능한 '평등'이 없이 '차이'만 부각되기에 동등한 권리와 공존이란 불가능하다.**

'인권이 박탈되었다'는 의미

- **"인권이 근본적으로 박탈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무엇보다 세상에 거주할 수 있는 곳, 자신의 견해를 의미 있는 견해로, 행위를 효과적인 행위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사라졌다는 의미다."**
- **인권이 사라진 인간 – 세상에 거주할 곳 없는 인간**

인권을 빼앗긴 사람들의 처지

- **"인권을 빼앗긴 사람들은 자유의 권리가 아니라 행위의 권리를 박탈 당하고, 좋아하는 것을 생각할 권리가 아니라 의사를 밝힐 권리를 빼앗긴다...대개의 경우에는 불의가, 또 축복과 저주가 우연에 따라 그들에게 주어진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했고, 앞으로 할 것인지는 전혀 상관없이 말이다."

권리를 가질 권리

-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정치상황이 생겨나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어떤 사람이 그의 행위와 의견에 의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구조 안에서 살고 있다는 의미)**, 그리고 **조직된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권리**를 잃고 다시 얻을 수 없게 되면서, 우리는 비로소 그런 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인권상실

- "**인권의 상실은 언어의 타당성의 상실을 수반하며**(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인간은 언어와 사유의 권력을 지배하는 존재로 정의되었다) **모든 인간 관계의 상실**(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인간은 정치적 동물, 즉 어떤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존재로 생각되었다)**을 동반한다.**"

정치조직의 상실

- "**인권을 잃었다는 것은...특별한 권리의 상실이 아니라 어떤 권리이든 기꺼이 보장해 주고 보장할 수 있는 공동체의 상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닥친 재난이었다... 정치조직의 상실이 그를 인류로부터 추방한 것이다.**"

정치조직의 상실이 난민에게만 일어날까?

- 정치조직 내에서 추방당한 사람들!
- **우리가 시민의 인권을 충분히 돌보지 않을 때, 정치조직 내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

우리가 인권을 돌보지 않을 때

- **우리가 인권을 돌보지 않을 때 우리 공동체 내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
- **법 앞의 평등은 고사하고 법이 관심을 제대로 기울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
- **재심 사건을 통해 밝혀진 이야기들**

'듣는다'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회

- "미래에는 경청자라는 직업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그는 돈을 받고 타인의 말을 들어준다. 타인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청자에게 간다. 오늘날 우리는 경청하는 능력을 갈수록 잃어가고 있다."

나르시스들의 사회

- "무엇보다도 더 에고에 집중하는 것이, 사회가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것이 경청을 어렵게 한다. 나르시스는 요정 에코의 애정이 담긴 음성에, 실로 타자의 음성이라고 해야 할 이 음성에 대답하지 않는다. 그래서 에코의 음성은 자기 음성의 반복으로 전락한다."

경청, 타자를 향한 환영

- "경청은 수동적 행동이 아니다. 특별한 능동성이 경청의 특징이다. 나는 우선 타자를 환영해야 한다. 다시 말해 타자의 다름을 긍정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를 경청한다. 경청은 선사하는 것, 주는 것, 선물이다. 경청은 타자가 비로소 말을 시작하도록 돕는다."

치유로서의 경청

- "경청은 타자로 하여금 비로소 말을 하게 한다. 나는 타자가 말을 하기 전에 이미 경청한다...**경청은 타자를 말하기로 초대하고, 타자가 그의 다름을 드러내도록 풀어준다. 경청은 타자가 자유롭게 말하는 공명의 공간이다. 그래서 경청은 치유할 수 있다.**"

경청과 인권 김만권

경청자의 판단을 유보한다

- 경청하는 사람들의 **"이 작은 숨소리들은 환대의 표시이며 어떤 판단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격려다. 최소한의 반응이다. 완전한 모습을 갖춘 단어와 문장은 이미 하나의 판단일 것이며, 하나의 입장 표명과도 같은 터이기 때문이다...경청자는 판단을 유보한다.**

경청과 인권 김만권

경청자는 인내한다

- **타자에 대한 경청자의 책임감 있는 태도는 인내로 표현된다. 인내의 수동성이 경청자의 준칙이다. 경청자는 망설임 없이 자신을 타자에게 내 맡긴다. 내맡김은 경청자의 윤리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준칙이다.**

경청과 인권 김만권

공동체는 경청하는 집단이다

- 경청은 정보의 교환과는 아주 다른 것이다. 경청할 때는 어떤 교환도 일어나지 않는다.
- 친근함과 경청이 없으면 공동체도 형성되지 않는다.
- 공동체는 경청하는 집단이다.

경청은 타자의 시간이다

- 지금 필요한 것은 전혀 다른 시간이 시작되게 하는 시간혁명이다. 타자의 시간을 다시 발견해야 한다.
- 오늘날의 능률주의의 시간정책은 타자의 시간을 제거한다. 이 시간 정책에서 타자의 시간은 그저 비생산적인 시간일 뿐이다.
- 우리를 고립화하고 개별하하는 자기 시간과는 반대로 타자의 시간은 공동체를 만들어낸다.

사회적 약자들의 언어

- 듣는 자가 없다면 이 세계에서 외로워진 사회적 약자들의 언어가 존재할 수 있을까?
- 사회적 약자에게 사회가 덧 씌워 놓은 게으름, 부도덕의 편견을 넘어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있을까?

사회적 약자들의 언어

- 그들이 약자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주해야 할 동료시민으로서 이 세계에 보일 수 있는 자격을 우리는 진심으로 믿고 있을까?
- 약자들의 말을 듣는다는 건, 그들이 세상에 없어도 아무도 모를 한 부분이 아니라, 늘 우리가 함께 해야만 하는 동료로 환대하는 첫 걸음이 아닐까?

경청과 인권 강만권

기후위기와 코로나로 본 환경문제

박주희(인천녹색연합)

기후위기와 코로나로 본 환경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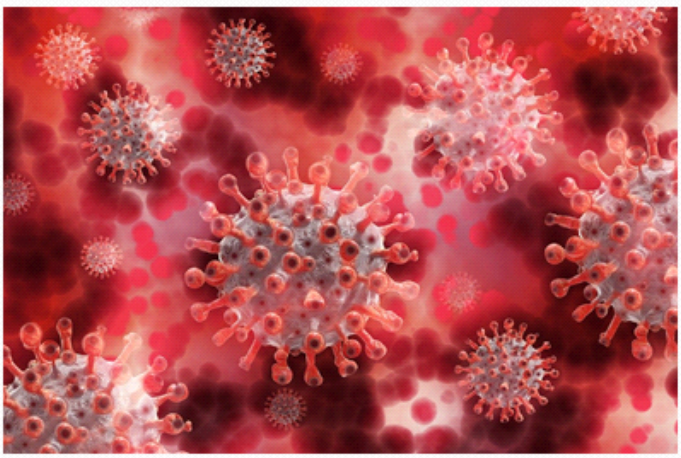
/ 20210721 청년민주시민·인권역량 강화과정

/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주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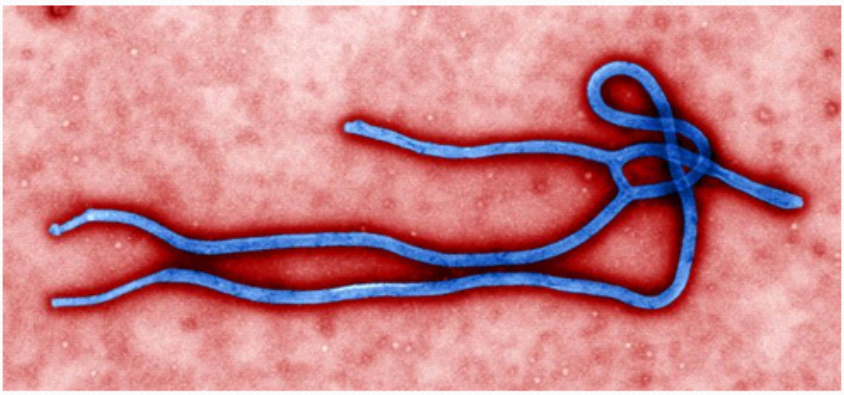
인천녹색연합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출현

인천녹색연합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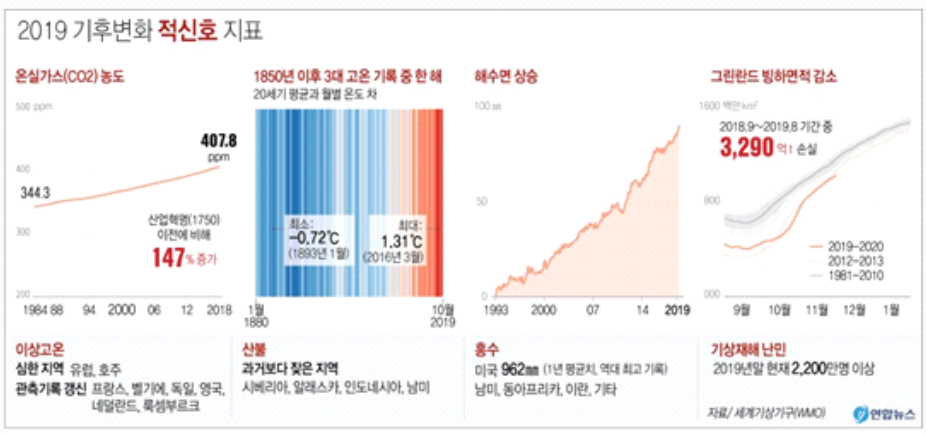


© Cynthia Goldsmith, USCDCP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출현

사진 출처
(좌) https://pxhere.com/ko/photo/1147149?utm_content=s here Cli p&utm_me dium =referre l &utm_source=pxhere
(우) https://www.pexels.com/ko/public-domain-photo-z.nhg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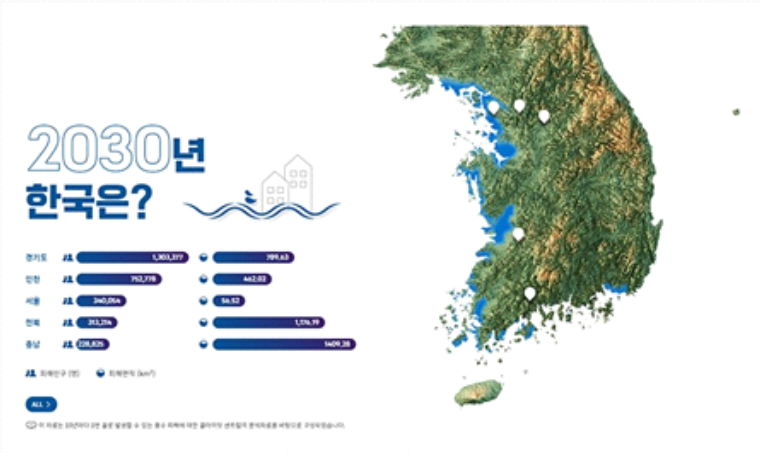
기후위기와 인류의 미래



장성구 기자 20191204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기후위기와 인류의 미래

인천녹색연합



기후위기와 인류의 미래

인천녹색연합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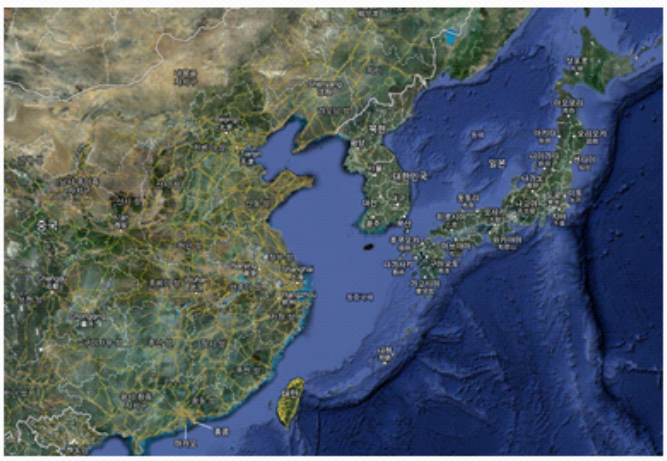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태풍 등 이벤트가 빈번해지면서
해안침식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3/9

또 다른 해안가에서도
해안 침식이 상당히 진행되어
위태롭게 보입니다.

인천의 지정학적 특성

인천녹색연합



인천의 지정학적 특성

인천녹색연합

출처 : 경향신문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606142336005

인천의 지정학적 특성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백두대간과 한남정맥

-1대간, 1정간, 13정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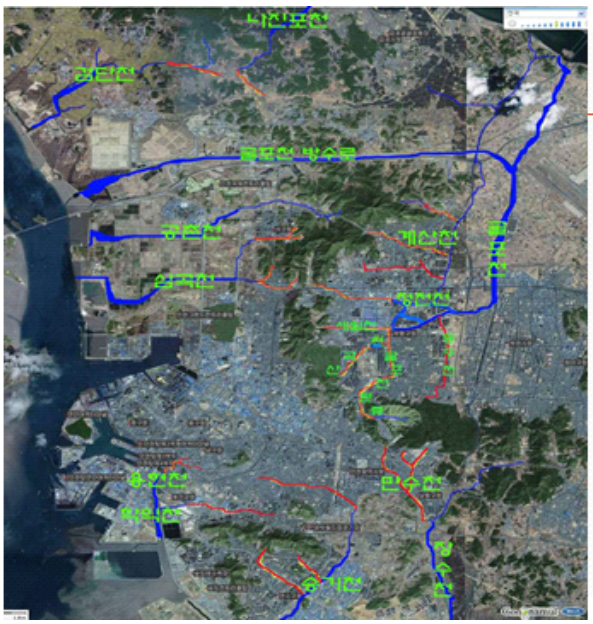
백두대간

장백정간

13정맥
(청북/청남/해서/임진북예성남/한북/한남/한남금북/금북/금남/금남호남/호남/낙남/낙동)

인천녹색연합

- 남북방향으로 발달
- 300m이내의 낮은 산지
- S자 자연녹지/생태축
- 주요산
  ; 성주산/거마산 ; 만월산/원적산
  ; 천마산/계양산 ; 가현산
  ; 소래산 ; 문학산/청량산
  ; 월미산/수봉산



인천녹색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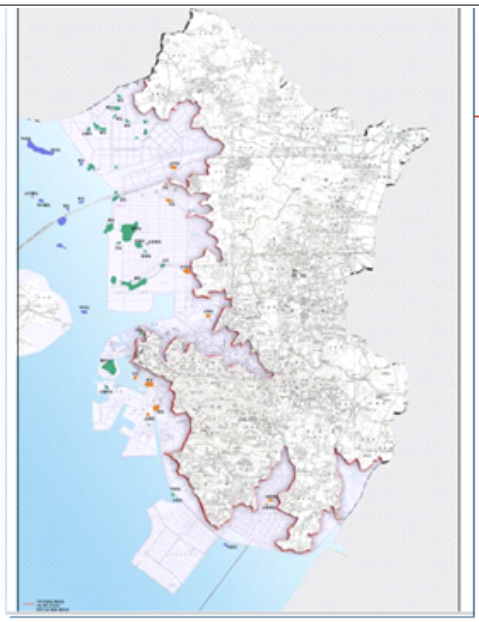
복개현황

- 인천하천의 38%복개
- 도로와 주차장
- 수질오염 2~9배 증가
- 만수천 : 93%
  굴포천 : 지류 82%, 본류 18%
  계산천 : 66%
  청천천 : 51%
  승기천 : 37%(57%)
  심곡천 : 20%(32%)
  검단천 : 14%
  나진포천 : 14%
  장수천 : 6%
  공촌천 : 6%

인천녹색연합

인천의 자연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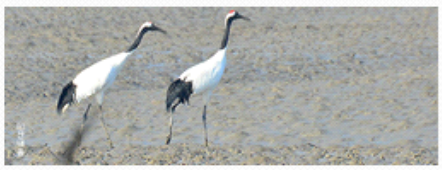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인천의 자연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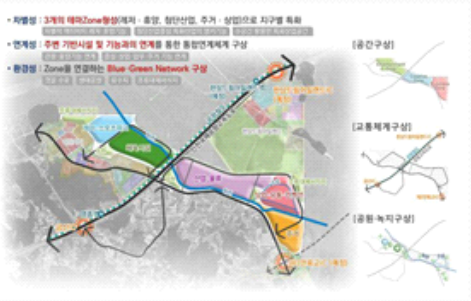
인천녹색연합



천연기념물 제257호는 '인천연희동및 경서동의 두루미 도래지'이다.
지금은 아파트 숲으로 변해버린 청라신도시와
세계최대규모라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는 우리나라의 주요 두루미도래지로 1984년까지 천연기념물이었던 곳이다.

1977년 지정 당시 천연기념물 제257호의 면적은 약31㎢였는데 이는 여의도면적의 10배가 넘는다.
1984년 천연기념물지정이 해제되고 간척사업이 시작되었다.
식량안보를 위한 농토 확대를 위해, 중동건설붐이후
건설장비들의 활용을 위해 그형게 동아매립지가 만들어졌다.

천연기념물 갯벌이었던 동아매립지의 절반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로, 나머지 절반은 2003년
청라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되었다.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인천의 자연환경

인천녹색연합

인천의 자연환경

인천녹색연합

천연기념물 : 총40여종

- 동물 : 저어새, 점박이물범, 매, 노랑부리백로, 장수하늘소 등 20여종
- 식물 : 대청도 동백나무, 볼음도 은행나무, 강화 탱자나무/소사나무 등
- 생태경관지역 : 백령도 사곶해변과 콩돌해안, 소청도 분바위, 강화남단갯벌 등

생태/습지보호지역

- 대이작도주변해역(풀등) 생태계보전지역
- 장봉도갯벌습지보호지역, 송도갯벌습지보호지역,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

인천의 자연환경

인천녹색연합

인천의 자연환경

인천녹색연합

물범의 보금자리 백령도

우리나라 서해의 최북단,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채 주민들의 소박한 정취가 묻어나오는 섬 백령도. 그 곳에는 효녀 심청이가 연꽃을 타고서 환생했다는 연봉바위가 있어요. 바로 그 연봉바위와 하늬바다 물범바위, 두무진 물범바위가 백령도 점박이물범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마지막 보금자리입니다.

인천의 자연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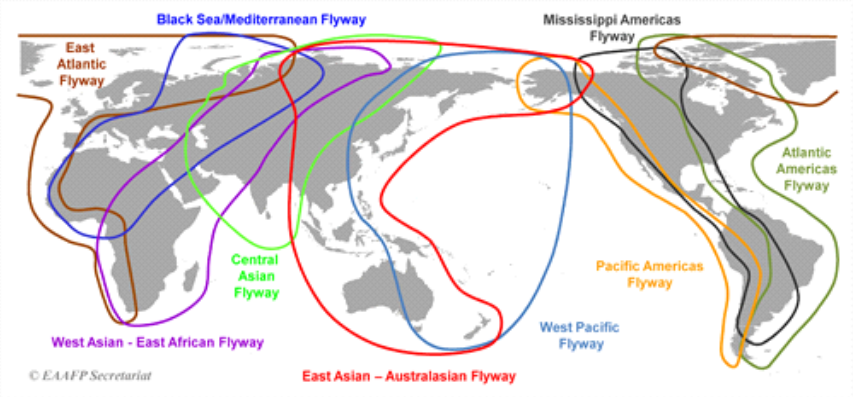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인천의 자연환경

인천녹색연합

세계의 주요 철새 이동경로(Major Flyways)



인천의 환경문제

인천녹색연합

인천의 환경문제

인천녹색연합

인천의 환경문제

인천녹색연합

인천의 환경문제

인천녹색연합

인천의 환경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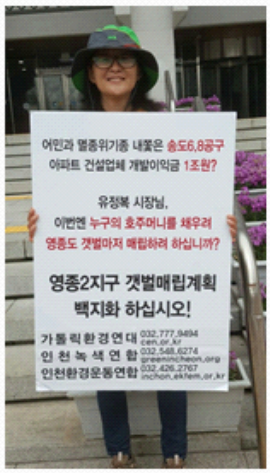
인천녹색연합

인천의 환경문제

인천녹색연합

인천의 환경문제

인천녹색연합



인천의 환경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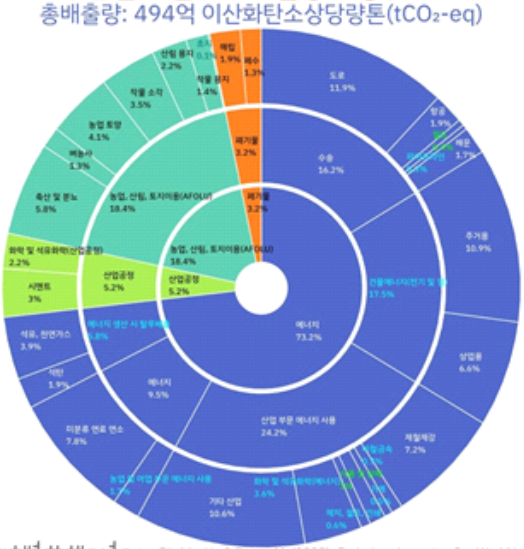
인천녹색연합

인천의 환경문제

인천녹색연합

전 세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2016년 기준)

총배출량: 494억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_2-eq)



기후변화행동연구소 Institute for Climate Change Action

Ritchie, H., & Roser, M. (2020). *Emissions by sector*. Our World in Data. https://ourworldindata.org/emissions-by-sector

인천녹색연합

인천의 환경문제

인천녹색연합

인천의 환경문제

인천녹색연합

인천의 환경문제

인천녹색연합

인천의 환경문제

인천녹색연합

☐ '가칭' 인천에코랜드(자체매립지)

구분	위 치	부지면적	조성면적	비 고
인천에코랜드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1일원	894,925㎡ (271,189평)	148,500㎡ (45,000평)	

☐ 자원순환센터

구분	위 치	설치용량	사용군·구	비고
중구	중구 신흥동3가 69 (남항 환경사업소)	250톤/일	중 구, 미추홀구	
남동구	남동구 고잔동 714-3 (음식물류폐기물 사료화시설 부지)	350톤/일	동 구, 남동구	
부평·계양	추후 결정	300톤/일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878-1 (생활폐기물 적환장)	45톤/일	강화군	

[서울, 경기, 인천 전체] (단위 : 톤)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1월까지)	2015년 대비 2019년(%)
매립 폐기물 총량	3,664,032	3,603,751	3,663,662	3,740,957	3,099,715	-15.42
매립 생활폐기물 총량	465,060	666,406	567,410	705,965	725,991	56.11

[인천] (단위 : 톤)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1월까지)	2015년 대비 2019년(%)
매립 폐기물 총량	713,085	743,350	600,032	690,704	637,313	-10.73
매립 생활폐기물 총량	57,070	90,188	86,009	106,888	119,619	106.70

[서울] (단위 : 톤)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1월까지)	2015년 대비 2019년(%)
매립 폐기물 총량	1,686,367	1,624,476	1,678,001	1,567,026	1,307,932	-22.44
매립 생활폐기물 총량	245,462	354,065	274,762	306,220	313,312	27.63

[경기] (단위 : 톤)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1월까지)	2015년 대비 2019년(%)
매립 폐기물 총량	1,264,559	1,235,917	1,325,630	1,483,225	1,154,470	-8.71
매립 생활폐기물 총량	161,708	214,133	206,620	292,877	293,061	81.23

<표 27> 인천시 연도별 폐기물 발생량

(단위 : 톤/일)

구분	계	생활계폐기물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건설폐기물
		계	가정생활	사업장생활		
2010	21,352	2,317 (10.9%)	1,863.4 (7.9%)	454 (1.9%)	8,960 (42.0%)	10,075 (47.2%)
2011	21,289	2,178 (10.2%)	1,852 (7.9%)	326 (1.4%)	8,670 (40.7%)	10,442 (49.0%)
2012	17,505	2,071 (11.8%)	1,699 (8.7%)	372 (1.9%)	6,708 (38.3%)	8,726 (49.9%)
2013	20,311	2,413 (11.9%)	1,609 (7.1%)	804 (3.5%)	8,992 (44.3%)	8,907 (43.8%)
2014	19,258	1,746 (9.1%)	1,461 (7%)	285 (1.4%)	9,372 (48.7%)	8,140 (42.3%)
2015	21,364	1,898 (8.9%)	1,603 (6.9%)	295 (1.3%)	9,850 (46.1%)	9,617 (45.0%)
2016	25,442	2,390 (9.4%)	1,838 (6.6%)	552 (2%)	11,673 (45.9%)	11,380 (44.7%)

자료 : 환경부(해당년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인천의 환경문제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인천의 환경문제

인천녹색연합

인천의 환경문제

인천녹색연합

모두를 위한 세상보기

김성미경 (인천여성의전화/인천이주여성센터 살러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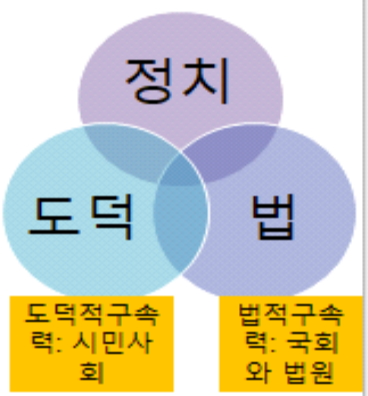
모두를 위한 세상에서 바라본

여성인권운동

김성미경
인천여성의전화 대표
인천이주여성센터 살러온 소장

인권의 개념

정치적 구속력: 정당



도덕적구속력: 시민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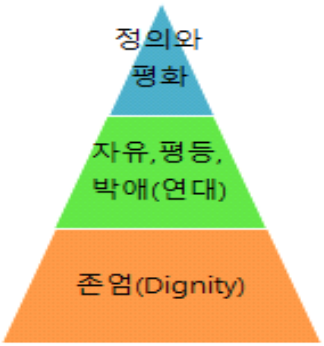
법적구속력: 국회와 법원

인(간)+권(리)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

인권은 자기소유의식이면서 동시에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조건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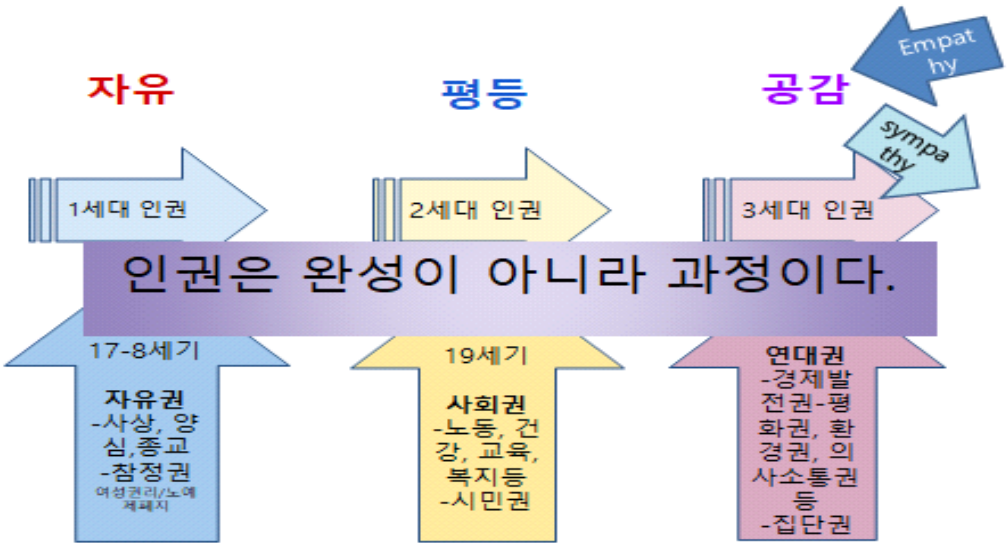
인권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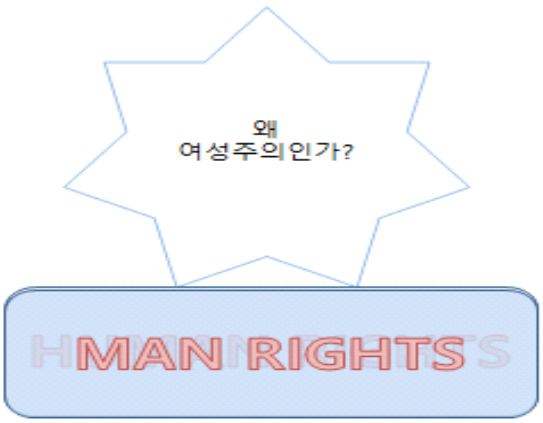


Human Rights :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는 권리

Civil Rights : 모든 시민들이 서로에게, 정부에게, 공동체에 요구할 서비스나 사회적 지위

- '국가'(정치기구)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시민권 개념





인권의 기원(BC)

안티고네

.신에게서 인간으로

15c~17.8c 상업혁명

왕에게서 시민(상인)으로

19c 산업혁명

.국가에서 자본가에게로

21c 4차 혁명????

인간에게서 기계로?

페미니즘이란
"양성 간의 법적,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이루고, 성차별주의와 남성에 의한 여성 억압을 종식시키려는 목표를 가진 사회운동이다"

'미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간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인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정체성(identity)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정체성이란 한 인간이 출생 후 성장과정에서 습득하게 되는 자신에 대한 규정. 개인의 자아정체성은 생물학적인 것 뿐 아니라 사회구조와 사회 관계 속에서 구성된다.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정체성도 마찬가지로 사회화 속에서 구성됨.

●Sexuality란

●개념 : 한 인간이 자신을 성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식

1) 성적 욕망(erotic desire) : 욕망, 감정, 판타지, 매력 등 신체적 정신적, 무의식 차원.

2) 성적 정체성(sexual identity) : 성적 정체성과 관련된 자기 규정, 혹은 행동

3) 성적 지위(sexual status) : 특정 성 정체성이나 성적 욕망에 부여되는 사회적 지위나 규범

사회구성주의적 관점 2

•Gender란 : 모양, 스타일 (프랑스어)/ 1950년대 남성성과

• 개념 : 한 인간에게 그 사회가 요구하는 바 대로 수행하기
[여성/남성, 여성성/남성성]

- 생물학적 성차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
- 사회화를 통해 고정관념을 재 생산시켜 여성과 남성
-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하는 **통념과 사회구조를 반박하는 개념으로 1970년대**

페미니즘 이론가들에 의해 남성의 여성지배권력을 분석하는 개념으로 사용됨.

* 그 사회의 지배담론(남성기준)과 권력이 남성과 여성의 성차의 '다름'에 **우열의 가치**를 매기고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호도하는 지점을 보여주는 분석틀.

•목표 : 젠더(성 역할: 의식, 관념, 사회구조) 타파

•사회구성주의적 관점 1

성의 정치학(sex-gender-sexuality)

•Sex란

•개념 : 생물학적으로 다른 성/ 암수 구분 / 성염색체(xx, xy)/ 성교

배경 : 18세기 중반, 산업혁명 초기 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화의 시기, 자유로운 인간에 대한 생물과학자들의 연구 활발. 여성과 남성의 다름 발견 왜 다른가 근거찾기 (지배자의 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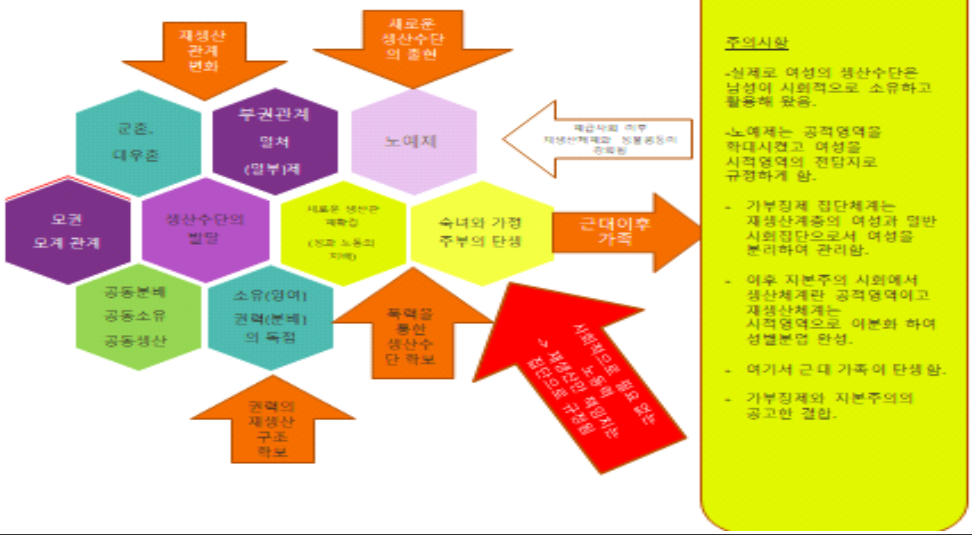
주장 : 남녀의 차이는 생물학적 조건에서 비롯된다.

목표 :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과학적 근거로 찾아내기. (예: 두개골 크기, 동물의 왕국과 비교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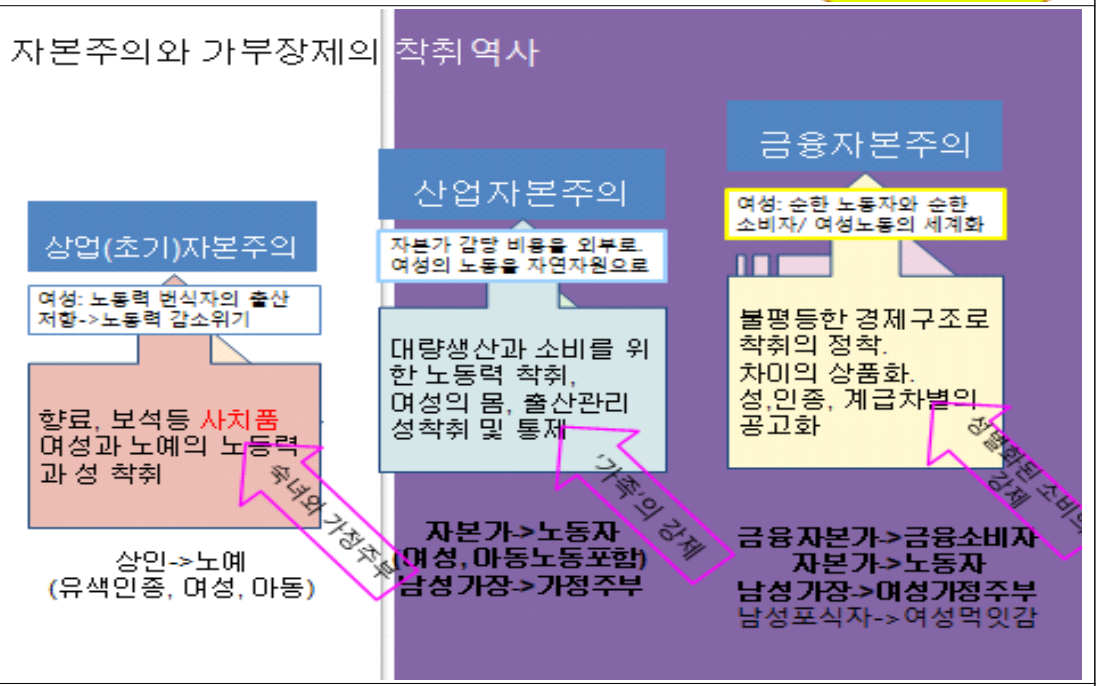
생물학적 관점

Herstory

성불평등의 기원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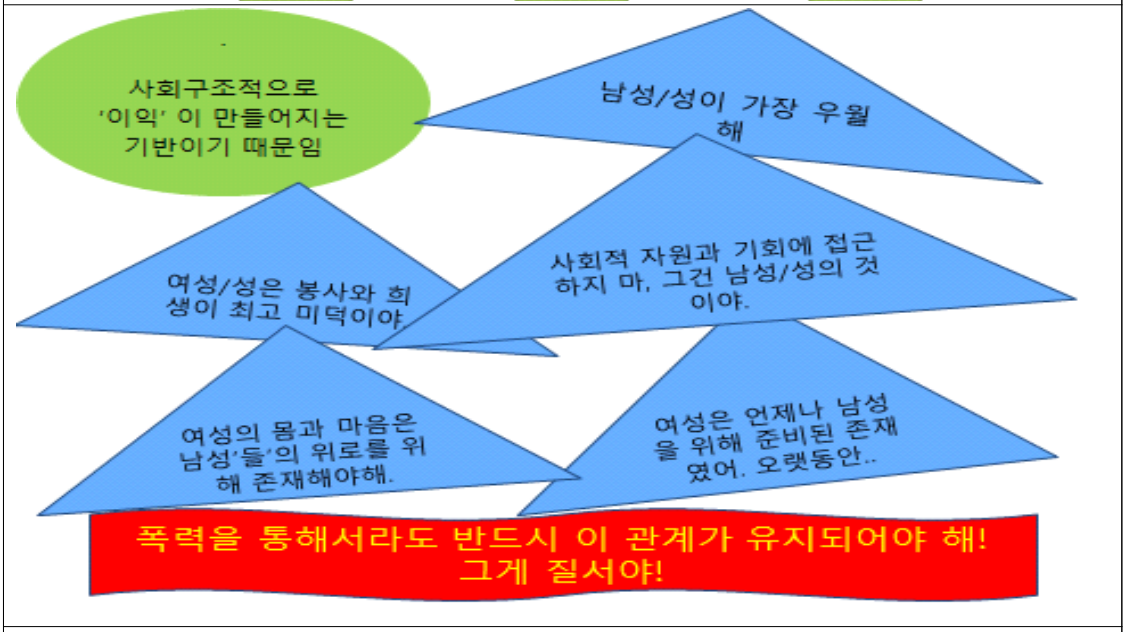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착취 역사



여성억압의 주 원인-가부장제(patriarchy)

- 가부장제란 남성에 의한 여성지배의 시스템을 가리킴
- 여성의 몸과 여성의 섹슈얼리티 통제를 통해 가부장제가 가동됨
- 여성의 몸-성적 사물화의 지점이자 부계혈통의 계승, 존속 지점
- 대응 : 분리주의-비혼 여성 공동체, 레즈비언 공동체
- 반포르노그래피, 반성착취 운동, 임신중절권 획득 운동



가부장사회 구조라는 것은?

1. 남성/성이 여성/성 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사회이다.
2. 여성/성의 사회적 자원과 기회 접근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사회이다.
3. 여성/성을 지배하면서 얻어지는 이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이다.
4. 비공식적인 문화나 제도(사적 영역)에서 까지도 남녀의 차별성을 유지하면서 이익을 얻는 사회이다.

즉, 차별의 행위를 통해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는 자/ 계급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 남성, 자본은 폭력을 통해 이러한 관계를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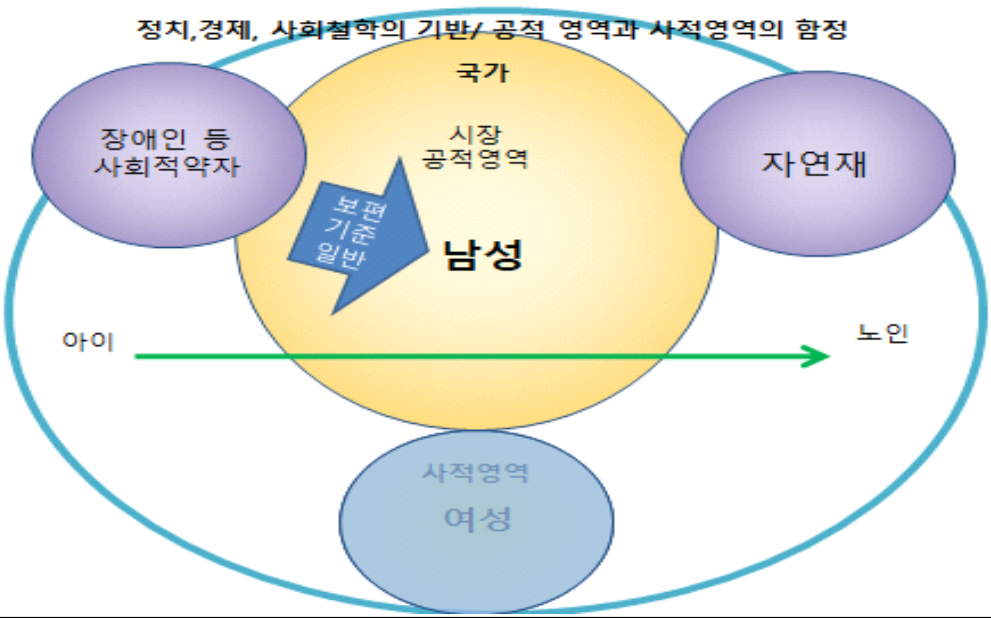
폭력은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

폭력은 행위가 아니라 관계이며
사회구성원과 그 관계에 있어
잠재된 능력과 실제 상태의 차이를
증대시키거나 감소를 어렵게 만드는
물리적, 또는 제도적인 영향력이라 정의한다(Galtung:2000:9)

사적영역의 분리 → '사적'영역인 '여성'의 분리 → [배제의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몸]

국책연구기관 연구자의 언어	사적 영역 자율성 강조	성인 상호간 합의가 가능한 관계일 것이라는 인식	신체적 폭력 여부에 집착
가해자의 언어	"남의 집 가정사에 경찰이 왜 끼나?"	"저 여자도 나를 때렸다"	"때리지는 않았다" (욕, 노려보기만 등)
경찰의 대응	아내폭력에 대한 경찰 개입 최소화	폭력에 대한 방어까지 쌍방폭력 가능성 의심	신체적 폭력 이외의 통제수단을 국가의 언어로 인식하기 어려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폭력이 '집안일'로 불리며 사소해 지는 경로	저항폭력이 쌍방폭력이 되어 피의자가 되는 경로	피해를 의심받게 되는 경로

(출처) 김홍미리(2018), 스냅사진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와 진짜 폭력, 한국여성의전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 토론회



건강한 가족의 역동적 구성요소

1. 가족의 응집성
2. 가족 적응성
3. 가족의 민주적 의사소통
4. 독립적이면서 상호보완적관계
   自我와 우리의 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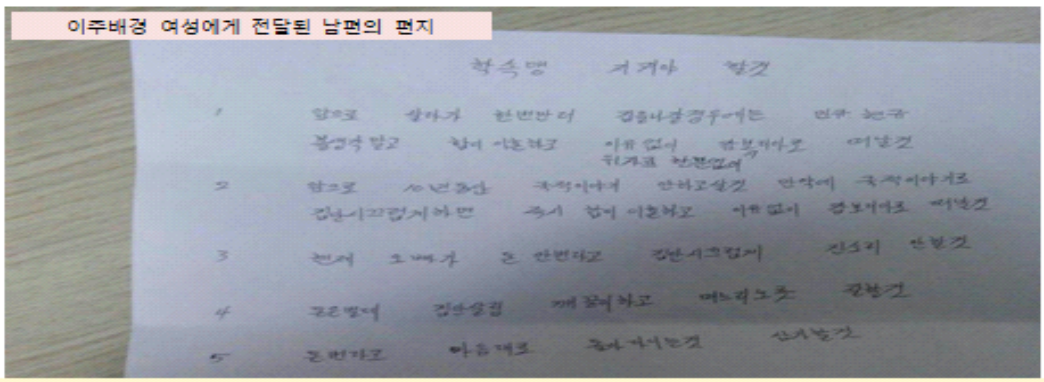
- 가부장적 권위주의
- 가부장(부권)제 질서의 원리
- 성별억압의 구조화

부계 부권적 가족 문제

1. 여성에 대한 종속과 통제
   - 경제적, 정서적 물리적, 성적
2. 고립과 무력화
3. 돌봄과 생산력의 극대화
   - 일 가정 양립, 교육전문가
4. 남성의 외도 및 방임
5. 국가의 책임 방기/자유주의

- 고부관계 : 가부장적 권력의 대행자
- 부부관계 : 남편중심구도
- 가족관계 : 합리적 의사소통 불가능성
  외부와 단절
  현실왜곡 가능성 높음
  보호와 복종 관계형성
  의존, 집착= 두려움
- 스톡홀름 증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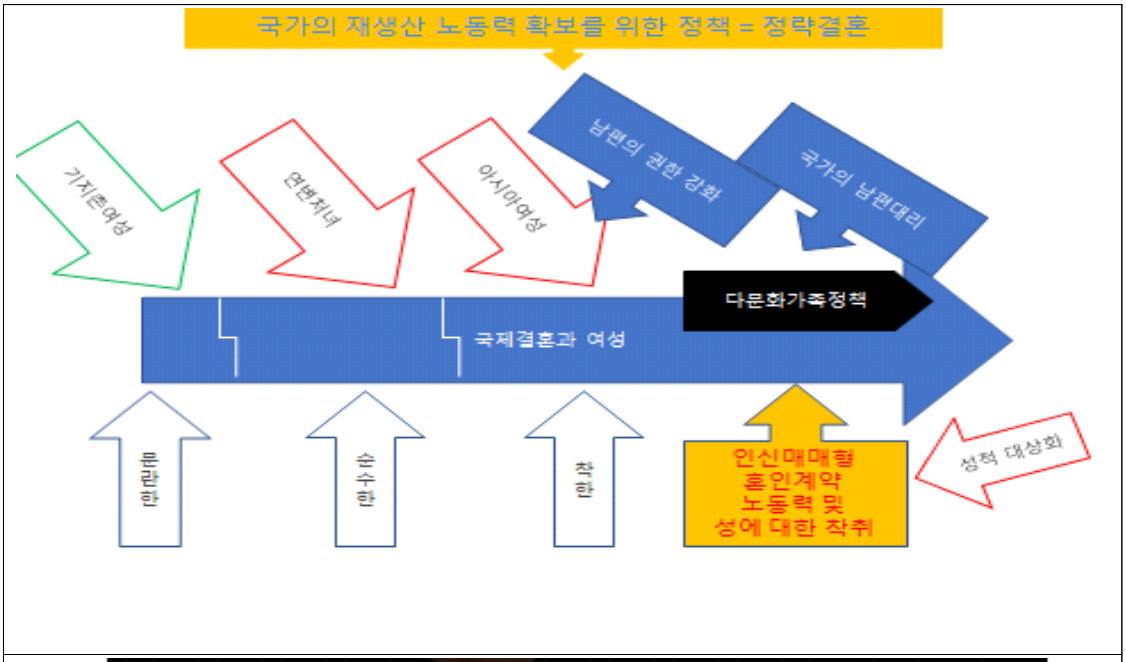
이주배경 여성에게 전달된 남편의 편지



000이 지켜야 할 것

1. 앞으로 살다가 한번만 더 집을 나갈 경우에는 00,00 볼 생각 말고 합의이혼하고 이유없이 **위자료 한푼 없이 캄보디아로 떠날것**
2. **앞으로 10년동안 국적이야기 안하고 살것**, 만약에 국적이야기로 집안 시끄럽게 하면 즉시 합의 이혼하고 이유없이 캄보디아로 떠날것
3. 현재 오빠가 돈 안 번다고 집안 **시끄럽게 잔소리 안할 것**
4. **돈을 벌되 집안살림 깨끗이 하고 며느리 노릇 잘 할것**
5. 돈 번다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 삼가할 것. [동영상 보기]**

이성애 성각본에서 여성의 성과 사랑은
남성의 돈과 교환되는 상품 과 같은 성격 을 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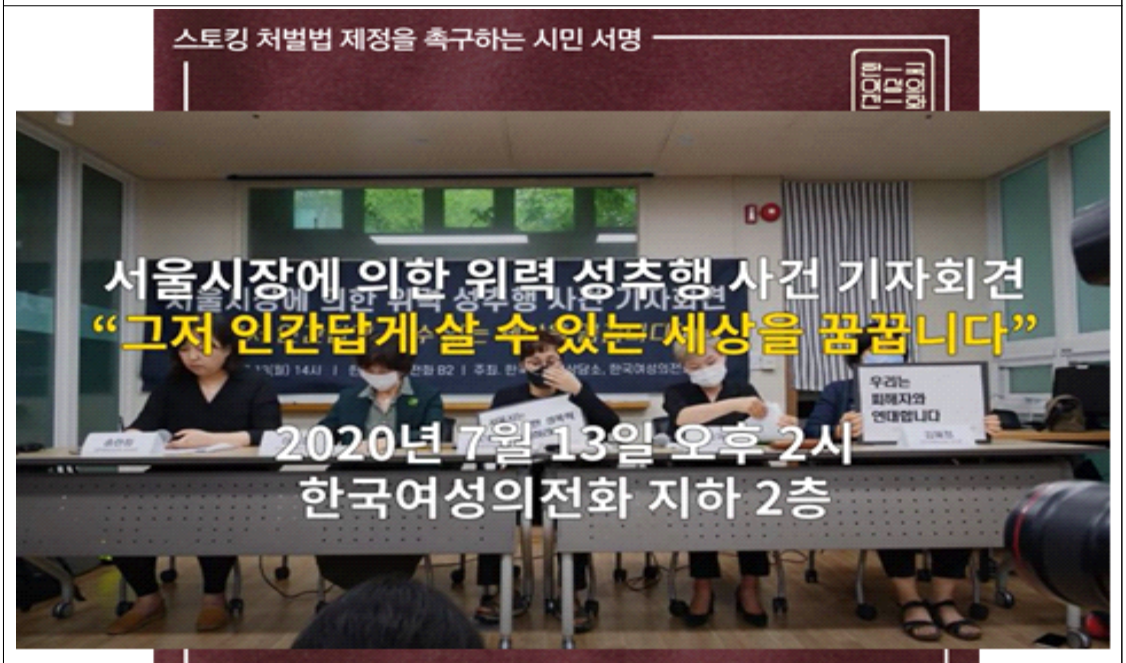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한 여성 및 여성주변인 살해범죄> 한국여성의전화

관계	범죄 유형	발생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아내,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여성	살인	74	65	120	123	114	91	82
	살인미수						95	105
소계							186	187
자녀, 부모등 주변인	살인						23	21
	살인미수						27	30
소계		26	6	35	30	57	50	51
합계		154	90	204	228	266	236	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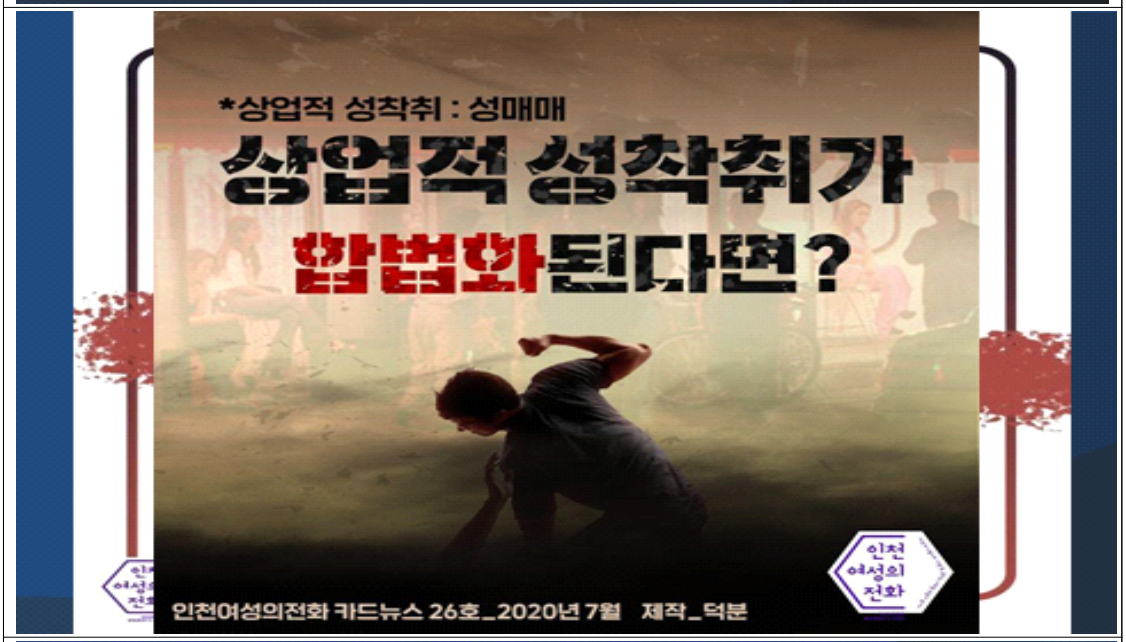
739명
2009년~2016년까지 남편,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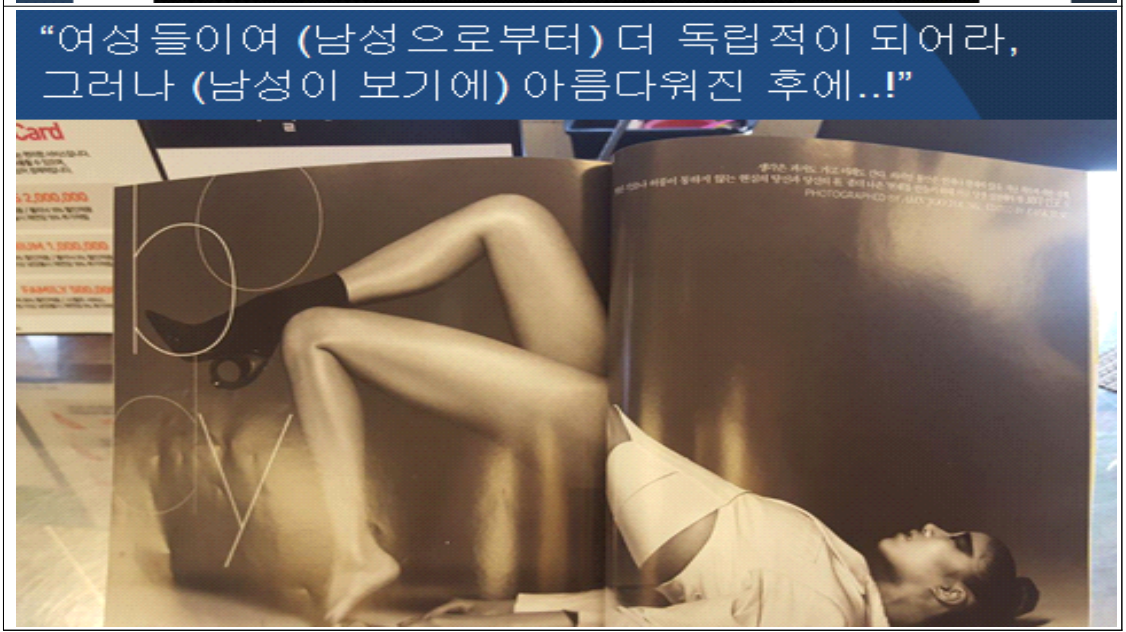
8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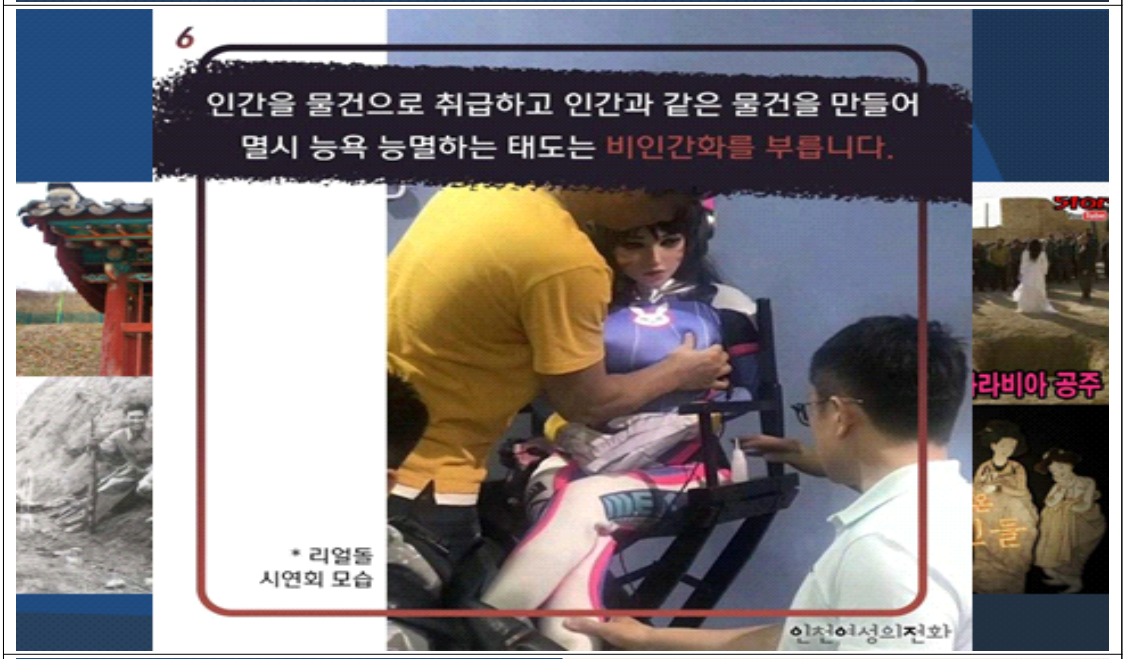
한국의 강력범죄 중 여성피해자의 비율
(2011년 통계청자료)



불법포르노물 유통경로
불법포르노사이트 3곳 운영(6명)
이용자 약 85만명
비공개촬영회 뿐만 아니라 소위 '국산야동'
이라 불리는 피해촬영물 유통
Stop Downloadkill
스튜디오
(정모 씨,
참가비 받
모델을 '
음란 사진
직접 또는 대리 촬영으로
음란 사진을 모으는 일종의 수집가.
경찰은 '음란물 중독' 가능성 추정
비공개 촬영회 사진을 대량으로
구입한 뒤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


*상업적 성착취 : 성매매
상업적 성착취가
합법화된다면?
인천여성의전화 카드뉴스 26호_2020년 7월 제작_덕분
인천 여성의 전화


"여성들이여 (남성으로부터) 더 독립적이 되어라,
그러나 (남성이 보기에) 아름다워진 후에..!"



** 비인간화의 기준

성(젠더) : 남자가 아니라는 것
인종 : 백인이 아니라는 것
계급 : 부자가 아니라는 것

여성대상 범죄는 성차별의 정점에 있는 이슈임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아내구타, 이별범죄 등
은 가부장적 지배권력의 여성의 비인간화(노예
화) 시도이다.

여성혐오범죄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 생각, 문화, 행동들을
일컫는 말.

가정폭력 : 아내구타(97년법제정)
- 가정폭력은 사회적 범죄
- 가정보호 아닌 피해자 인권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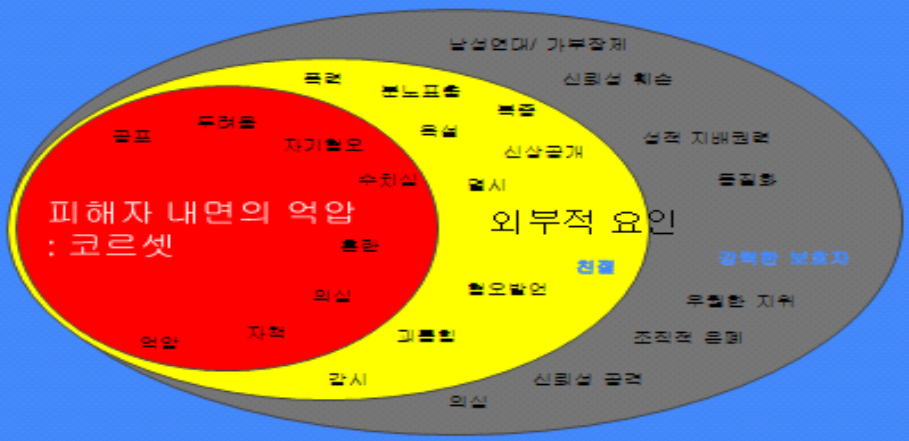
성폭력 (94년법제정)
- 성적자기결정권 행사 억압
- 성적자존감 침해

성매매(2004년 법제정)
-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
- 인신매매
- 여성의 성적 대상화 문제제기

이주여성/다문화가족지원법(2005년)
- 인신매매성 국제결혼
- 사회적 고립 및 빈곤
- 인종, 문화차별

여성폭력방지기본법(2018년)
여성혐오와의 전쟁
- 가부장권력의 해체
- 불법촬영물과 편파수사 문제
- 임신중단 합법화
- 4비운동/미러링 전략
- Sexring-catcalling

여성을 침묵하게 하는 요소들-스톡홀름 증후군



스톡홀름 증후군이란?

-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유대감을 가짐으로써 생존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인지왜곡 현상

- 선행조건 : 주관적인 생존위협, 주관적 탈출의 불가능성, 주관적 친절, 그리고 고립

- 인질과 인질범, 점령군과 포로
- 여자와 남자

-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아내구타, 아동학대등
- 가부장제 체제 내 남성집단과 여성집단

출처:loving to survive(여자는 인질이다) 디.LR그레이엄/열다북스

"역사(History)는 힘있는 자에 의해 씌여진다"

왜 반복되는가?

여성을 성적 도구로 만드는 포르노 문화와 관습 그리고 사회체제

강간은 착취의 수단, 착취를 지속시키는 사회 그리고 관심 없는 사람들..

가부장권력 해체와 여성주의

-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구조는 약탈, 경쟁등 폭력에 기반함.
-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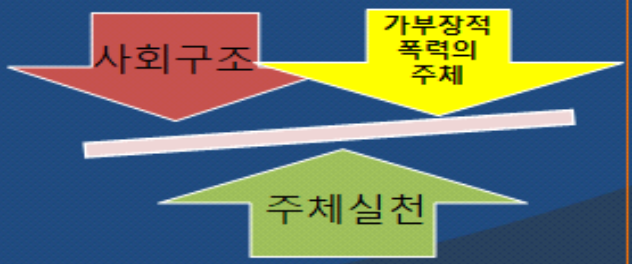
- 여성운동의 핵심은
- 성불평등한 권력관계 해체를 통해 성평등한 민주화를 구현하는 것임.

- 타자와 평등한 의사소통적 관계를 의미함.
- 상호인정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임.

- 상호인정은 개인적 관계와 더불어
- 사회적 관계,
- 사회적 소속감(시민성)에서 완성해 나아감.

여성운동이란

- 여성운동은 여성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사회구조**(가부장제, 자본주의)와 그로 인한 사회현상을 해결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이다. 그 결과 권력변동과 가치의 변화를 가져온다.
- 구조→주체



제2물결 여성운동

시 기	내 용
1975년	세계여성의 해, 여성학 도입(1978년)
1980년대	여성단체들이 조직됨(주체의 조직) -주체: 기층여성, 변혁적 지식인, 중산층 주부 -과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
1990년대	-운동방법: 입법운동(제도화)/ 국가페미니즘(페모크라트) -민주화에 힘입어 국가와 협력관계 -대학 90학번중심의 급진주의 페미니즘확산 진보남성운동가들의 성폭력 사건 폭로/ 군가산제논쟁등 영페미니스트들의 온라인 활동 생성과 후퇴
2000년대 초반	여성운동 위기 담론 -원인: 제도화의 역기능,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안착, 보수정권의 백러쉬 -"시민 없는 시민운동", 여성운동의 자율성 약화, 활동가 재생산의 어려움 -구조의 변화, 주체의 약화 차이의 정치학/ 퀴어정치학/ 성노동자론등 포스트페미니즘등장

제3물결, 다시 시작

시 기	내 용
2010년	-온라인 상 여성혐오 공간 형성: SNS, 각종 미디어, 대중 문화 등에서 여성혐오 표현 급증 -주체: 젊은 온라인 여성유저들(온라인에서 페미니즘학습, 해외정보 네트워크, 광우병 · 촛불집회 경험) -운동방법: 온라인과 일상에서 여혐(남성)과 일대일로 담론 투쟁
2015년	-메르스 발생(5월): 일간제스트 등 남초 사이트 중심으로 여성혐오 극심 -디시인사이드 싸이트 메르스 갤러리 게시판 등에 여혐이 심해지자 미러링 등장, 메갈리아(메르스 갤러리+이갈리아의 딸들)게시판과 싸이트 탄생 -메갈리아의 탄생(8월)/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폐지운동
2016년	-워마드 (1월)woman+nomad, 레디즘 -강남역 10번 출구 살인사건(5월)/검은시위(낙태죄폐지 시위)
2017년	-워마드 위키 개설(7월)
2018년	-미투운동(1월) -홍대 몰카 사건(5월): 편파수사로 사이트 게시자 구속(10개월 실형), 이에 반발 5. 19 혜화역, 광화문에서 대규모 시위(주최: 불편한 용기) -탈코르셋운동, 여성소비총파업운동 -비웨이브(BWAVE) 임신중단합법화촉구시위 -생물학적 여성만(배제주의, 분리주의) 퀴어혐오논쟁등 다양한 층위에서 벌어지는 여성혐오를 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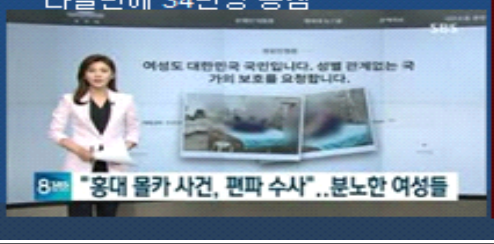
여성의 저항기술- 자기방어

- 어떠한 저항도 하지 말고 그저 견뎌낼 것, 선처를 바라는 것, 순응할 것을 여성들에게 주입해온 사회
- 여성에 의한 폭력의 활용-자기방어
- 당하는 자에서 행동하는 자로의 이행, 새로운 몸의 감각의 발명
- 연대를 위한 여성 공동체 필요
- 여성 대상 폭력을 용인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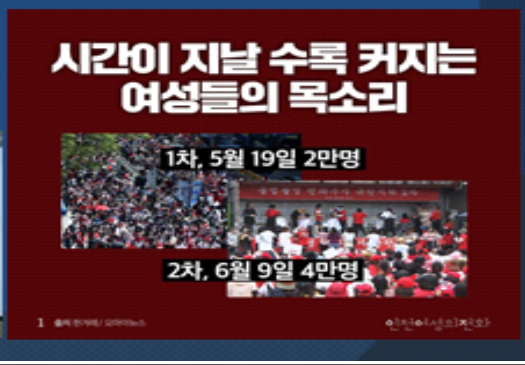
서프러짓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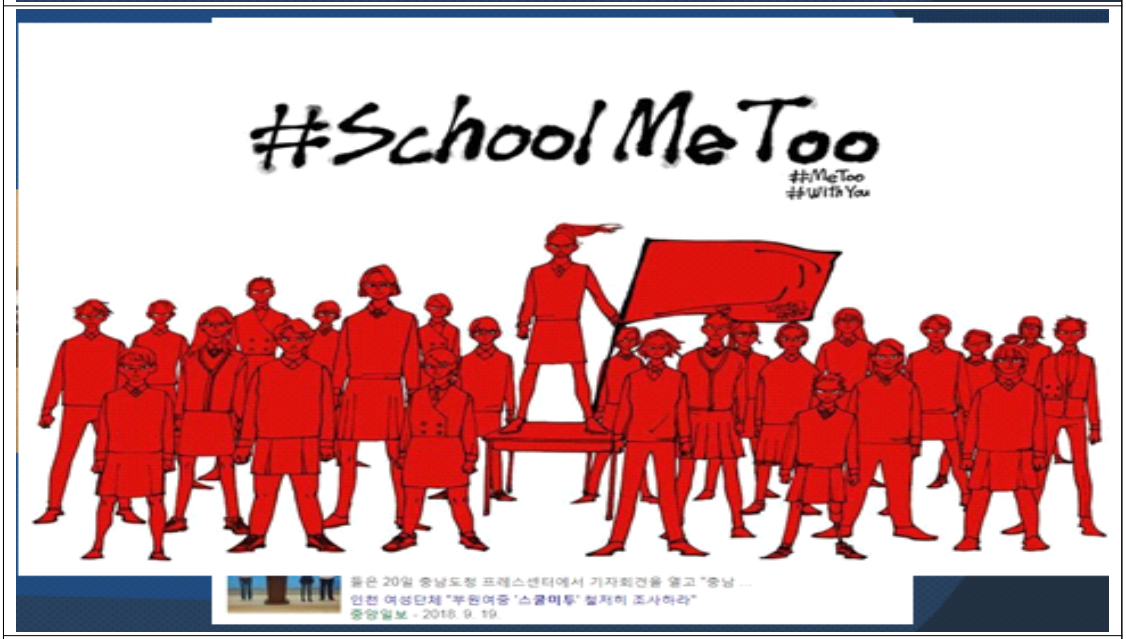
불법촬영편파수사규탄시위

- 2018. 5. 1. 소위 홍대 몰카 사건 발생
- 경찰은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출한 여성모델을 신속하게 체포, 1심에서 10개월 실형
- 청와대 게시판에 "여성 몰카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해적인 수사를 해달라"는 청원 올라옴, 나흘만에 34만명 동참



- 5. 19. 1차 혜화역 시위, 주최 온라인 카페 '불편한 용기'(The courage to be uncomfortable changes the world)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성착취 채팅방 목격된 최대규모	2만2천 명
검거된 가해자	36 명
피해자 중 아동 · 청소년	70 명
검거된 가해자 보유 성착취 영상	100만 건
그중 미성년자 등장 영상	21만 건

2019.11.28, 2020.01.17.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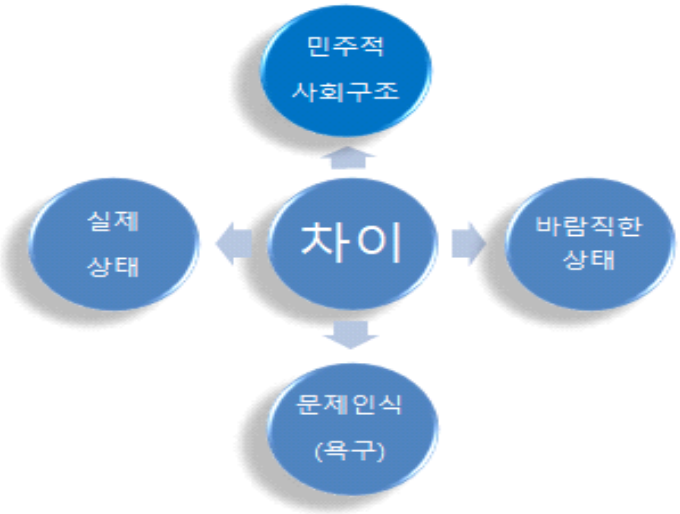
일자 : 2월 말 ~ 3월 초
장소 : 미정

http://cafe.daum.net/N.487634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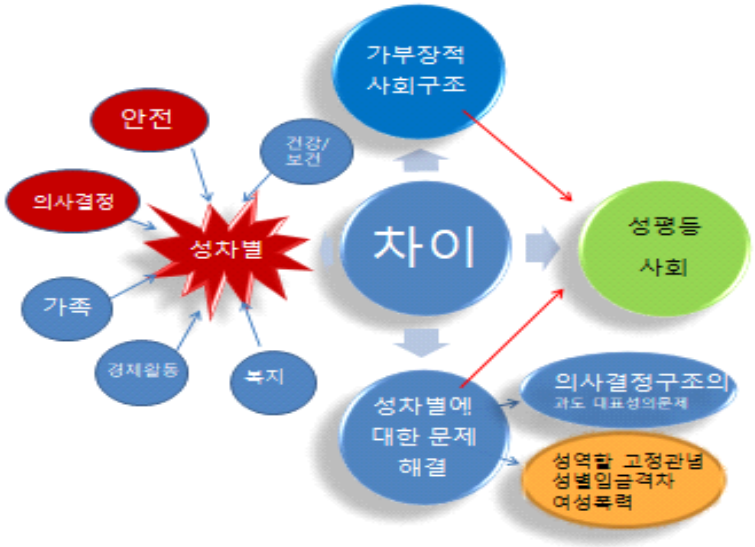
성평등은 민주주의의 완성

- "성"에 대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태도, 그리고 완성된 인권의식의 중요성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요소



민주사회 구성의 제약요인 탐색



친밀한 관계에서의 민주주의

친밀성을 전제로 한 관계, 사적(私的)관계?

- 타인과 소통의 기본은 **커뮤니케이션**
-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 출발은 평등한 민주적 관계

- 개인과 개인간의 미시적 관계에서의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으면서 사회나 국가의 민주주의는 허구이다.

*** 상호 존중과 배려의 다른 말은 **"평등"**이다.

-노예-

노예가 노예로 사는 삶에 익숙해 지면
놀랍게도
자신의 다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자랑하기 시작한다.
어느 쪽의 쇠사슬이 더 빛나는가 더 무거운가..
그리고
쇠사슬에 묶이지 않은 자유인을
비난하기 까지 한다.

-리로이 존슨, 1968년 NY 할렘-

일러스트 꼴레미 © 인천여성의전화
지금 아니면 언제?
내가 아니면 누가?
if not me who, if not now when!
NAKED WAR
문의 032-527-0090 후원 신한은행 100-028-607280 인천여성의전화

학교민주시민교육과정 이해하기

김용진(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학교 민주시민교육과정 이해하기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장학사 김용진

누구일까요?

(가)와 (나)의 차이는?

(가) 보통 청각의 손상이 있어 들리지 않으면 장애를 가지고 생활하게 됩니다. 헬렌 켈러의 경우도 어린 시절 심한 병에 걸려 청각과 시각을 잃어 장애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부모는 가정 교사인 설리번 선생님의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이후 헬렌 켈러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나) 발리섬 벵칼라 마을에서는 청각의 손상으로 들리지 않아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마을 주민 80%가 수어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의 청각 장애는 세계 평균보다 15배나 높아 마을 사람들은 수어를 배워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개인 중심의 이해

- 개인역량(도덕성, 성실, 공감 등)
- 노력하기(학습)
- 주변변화(자원봉사)
- 개인적 참여

사회 중심의 이해

- 정치이해(사회 구조와 사회적 자원의 배분 관계)
- 연대하기(사회적 공감)
- 제도변화
- 사회적 참여

개인과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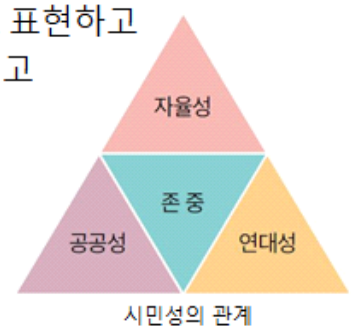
- 공감 vs 사회적 공감
  심리학 vs 사회 심리학
  Text vs Context
  개인 읽기 vs 세상읽기

OECD EDUCATION 2030

학교 민주시민교육이란?

- 시민 : 자신의 생각을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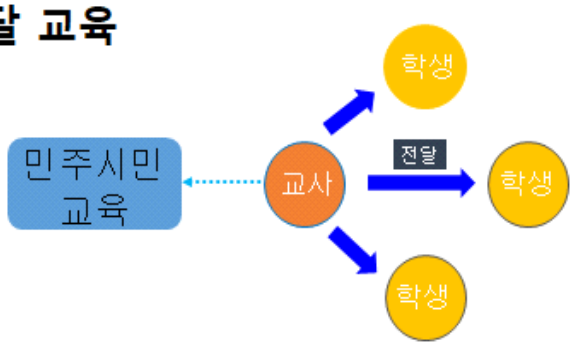
- 민주시민교육 : 시민으로서
  시민성을 함양하는 교육



시민성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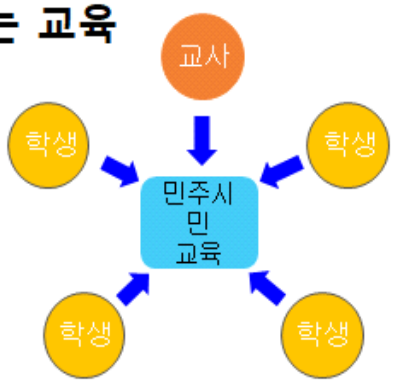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지식 전달 교육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스스로 생각하는 교육



민주시민성이란?

- **자율성**(autonomy) : 자기결정권을 가진 개인이 공동의 합의를 통해 규율을 만들고 준수하는 것

- **공공성**(publicness) : 자율성을 가진 개인과 공동체가 공적인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

- **연대성**(solidarity) : 자율성을 가진 개인 및 공동체가 사회적 공감과 소속감을 바탕으로 함께 상호작용하며 결속하는 것

민주공화국

- 시민의(에 의한) + 시민을 위한 정치체제

- 민주공화국의 시민은
  -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적인 존재(존엄)
  - 정치(사회)에 참여하여 공공성을 추구

즉, 주권자인 국민(주체적인 시민)이
연대성 갖추고
정치과정(공론의 장)에 참여하며 공공성을 추구

자율성

주체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율성 교육

영화 : 배심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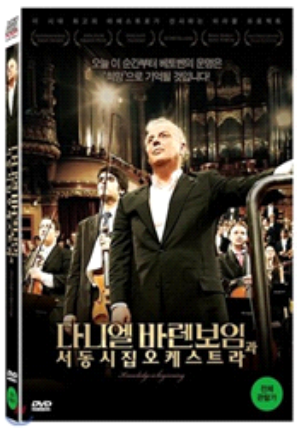
영화 '배심원들' 중에서

공공성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을 바탕으로 토론하며 공적 책임을 갖는 공공성 교육

영화 : 4등

다니엘 바렌보임과 서동시집 오케스타라 중



https://tv.kakao.com/v/44071163@my

연대성

사회적 공감과 소속감을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며 함께 살아가는 연대성교육

영화: 셀마(https://tv.kakao.com/v/69650514@my)

가. 논쟁성 재현과 토의 토론 수업

• 우리 사회의 현상을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 토의하고 토론하는 수업

나. 실천과 참여의 사회 참여 수업

• 우리 공동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해결하기 위해 참여하여 행동하는 수업

'시민과 사회 정의' 교육과정 이해하기

- 성격 : '시민과 사회 정의'는 학생이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회현상 및 현안을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자신과 공동체의 정의에 대한 관점**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과목이다.
- 목표 :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상 속에 담겨진 사회 정의를 탐구**하고, **학생 시민이 자율성, 공공성, 연대성의 조화된 민주시민성을 함양**함으로써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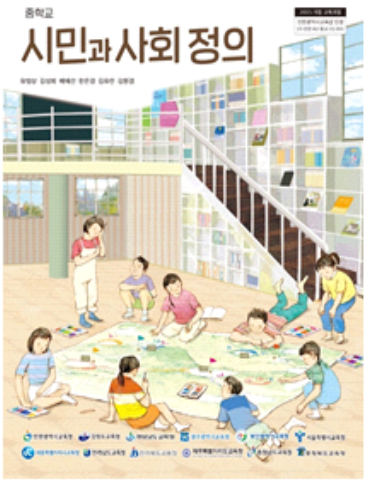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 1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정의는 있을까?	수많은 정의들	사회 정의는 구성원들이 합의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합당한 몫'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존재한다.	·사회 정의의 의미 ·다양한 정의관
	정의를 찾는 방법	사회 정의는 사회 구조와 제도를 이해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의 참여로서 실천이 중요하다.	·사회적 합의 ·토론과 숙의
이상적인 공동체는 이상적일까?	계급의 고착	계급을 강조하는 사회는 역할에 따른 계급의 고착보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	·계급과 역할 ·보이지 않는 계급
	똑같은 모습의 평등	똑같은 모습으로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는 철저한 계획과 엄격한 윤리를 강조한다.	·경제적 평등 ·다양한 유토피아
옳은 것은 좋을까?	도덕법칙은 나의 의무	옳음의 기준을 절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 법칙과 의무를 강조한다.	·도덕 법칙 ·선의의 거짓말
	중요한 것은 결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다수결 제도 ·소수 의견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 2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자유로우면 행복할까?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구현되는 사회는 자유와 함께 공평한 관관자로서의 사회 겉서가 필요하다.	· 시장의 자유 · 공평한 관관자
	자유, 프리덤스	자유 지상주의는 개인의 자유에 따른 사적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이해한다.	·자유지상주의 · 상품화와 환경 문제
평등하면 행복할까?	평등한 분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강조하는 사회는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통해 분배의 정의를 실현한다.	·분배 정의 ·공유화와 사유화
	공정한 절차에 따른 분배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는 사회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분배의 정의를 실현한다.	·공정한 절차 ·무지의 베일
정의는 어떻게 만들까?	다양한 정의의 관점	다양한 사회 정의의 관점에 따라 서로의 정의에 대한 가치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다양한 사회 정의 · 차이의 인정
	정의로운 정의 만들기	공동체의 함께 살아갈 사회 정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항정에서의 토론과 성관 그리고 실천이 중요하다.	· 토론과 성관 · 정의의 실천

시민과 사회 정의 '인정도서'



[개발 과정]

2020. 2. 민주학교 운영 위한 교육과정 개발

2020. 8.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심의 요청

2020. 11. 교육과정 승인

2021. 02. 인정도서 심의 제출

2021. 5. 26. 인정 승인

2021. 5. 28. 인천외 11개 시도교육청 사용하기로 협력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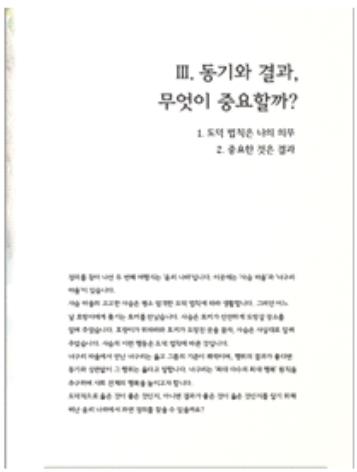
- 주인공 다정이(다람쥐)가
  여러 마을을 여행하며
  마을의 지도자를 만나
  마을의 정의에 대해
  토론하며 탐구하는 형태로 구성

다정이와 마을의 동물 지도자

등장인물		특징
	다정 (다람쥐)	주인공으로 옳은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정의를 찾는 여행을 떠남. 다정이란 이름에는 '다람쥐가 찾는 정의'와 '모든 정의를 찾는다'는 뜻이 담겨 있음.
	디케	정의의 여신으로 눈을 가리고 있으며 양손에 든 저울과 칼로 정의를 판단함.
	코뿔소	계급과 능력에 따른 분배를 중요하게 여김.
	표범	사유 재산과 계급이 없는 사회를 지향함.
	사슴	보편타당한 윤리를 따를 것을 주장함.

등장인물		특징
	너구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함.
	고양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생각함.
	하이에나	시장에서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할 것을 주장함.
	허스키	공동 소유와 공동 생산, 공동 분배를 주장함.
	기린	최소 수혜자를 배려하는 공정한 절차를 강조함.

3단원 소개



1 도덕 법칙은 나의 의무

도덕 법칙을 동기와 의무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슴 마을에는 행동의 동기와 마음에서 나오는 의무를 강조하는 사슴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결과적으로라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다랑이는 도덕적 율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슴 마을의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생각 열기

사슴 마을

토끼: 살려 주세요. 호랑이가 쫓아와요. 살려 주시면 제가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사슴: 은혜를 갚는다고? 나는 대가를 바라고 행동하지 않소.
토끼: 그럼 조건 없이 살려 주세요.
사슴: 내 양심에 따라 숨겨 주겠소. 저 뒤쪽으로 얼른 가시오.
다랑: 호랑이가 나타날지 모르는데 무섭지 않으세요?
사슴: 나는 내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을 할 뿐이야. 모든 동물에게는 이성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려는 의지가 있단다.
호랑이: 이쪽으로 도망치는 토끼 봤지? 어디로 갔지?
사슴: 저쪽으로 갔소.

1. 사슴이 호랑이에게 토끼가 도망간 곳을 알려 준 이유를 생각하여 써 봅시다.

2. 내가 사슴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였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생각 나누기

중요한 것은 동기

사슴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절대적 도덕 법칙'을 지키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도덕 법칙과 동기'를 강조하는 사슴의 입장을 살펴봅시다.

활동 1 도덕 법칙으로 대화하기

활동 순서

1. 2명씩 계임을 함께 할 짝을 정합니다.
2. 가위바위보를 해서 순서를 정합니다.
3. 고민할 여지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도덕 법칙과 관련된 질문을 상대방에게 합니다.(예: 남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되겠지?)
4. 질문을 받은 상대방은 "당연하지."라고 대답합니다.

도덕과 도덕 법칙
도덕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양심, 관습 등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으로 내면을 강조한다. 도덕 법칙은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 되는 보편타당한 법칙을 의미한다.

동기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마음을 먹게 하는 원인이나 계기를 의미한다.

1. 상대방이 "당연하지."라고 대답하지 못한 질문은 무엇인지 써 봅시다.

2. 내가 "당연하지."라고 대답하기 힘들었던 질문은 무엇인지 써 봅시다.

생각 넓히기

선의의 거짓말

도덕적인 사람도 일상생활 속에서 '선의의 거짓말'을 해 본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지 살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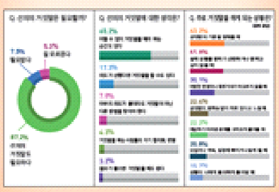
자료 1 선의의 거짓말과 통계

선의의 거짓말은 필요할까?

선의의 거짓말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선한 행위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이므로 모든 책임은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져야 합니다.

한 설문 조사 결과 대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은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 조사에 응답한 대학생 중 87.2%는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은 아니라며 '선의의 거짓말도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좋은 의도라 해서 거짓말이 용납될 수는 없다. 거짓말은 필요없다'는 응답은 7.5%에 그쳤습니다.

— 디지털조선일보, 2016. 5. 2.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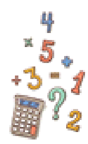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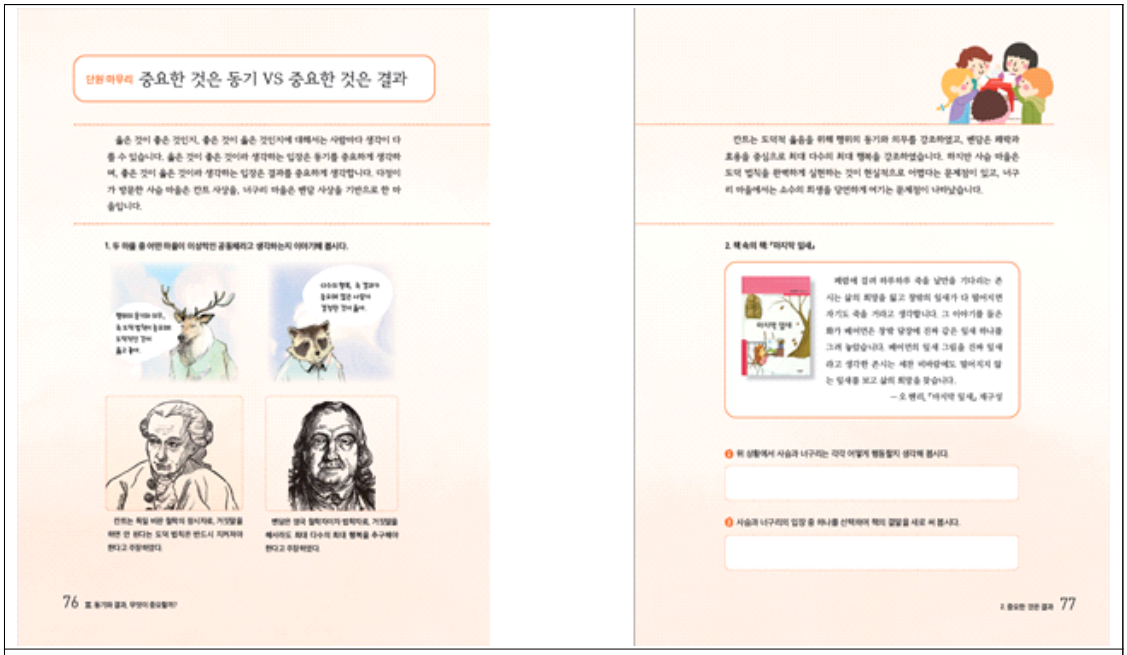
1. 선의의 거짓말을 해 본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2.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옳가불가 수직선의 단계에 표시해 봅시다.
질문: 선의의 거짓말은 옳은가?

3. 옳가불가 수직선에 표시한 의견에 대한 이유를 쓰고, 친구들과 서로 의견을 비교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4. 사슴은 선의의 거짓말에 반대합니다. 사슴의 입장에 대한 나의 생각을 쓰고, 짝과 함께 토론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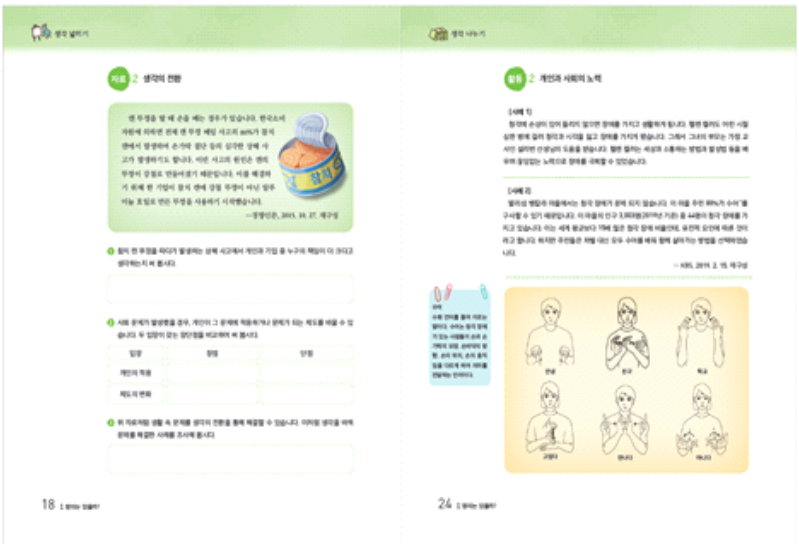



단원의무리 중요한 것은 동기 VS 중요한 것은 결과
1. 두 의뢰 중 어떤 의뢰이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2. 책 속의 책 '마지막 잎새'
76
77

토론 방법

생각 나누기
활동 1 토론의 단계
22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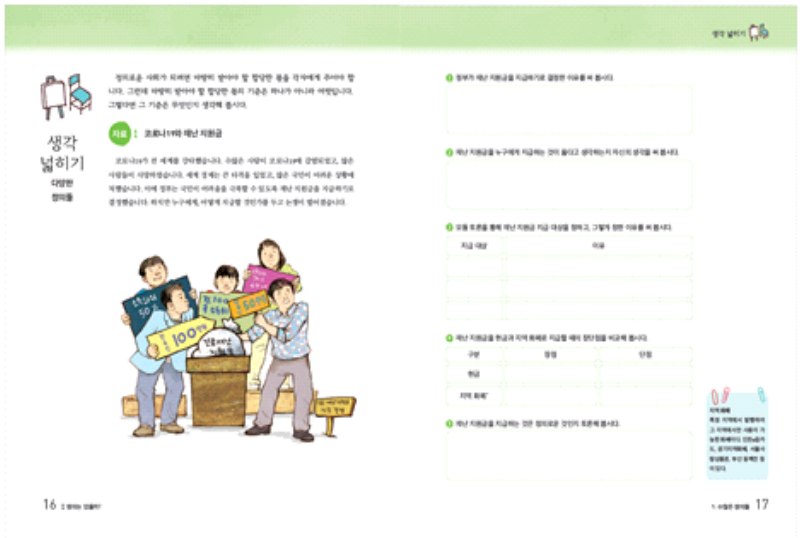
관점 전환


자료 2 생각의 전환
활동 2 개인과 사회의 노력
18
24

학급 자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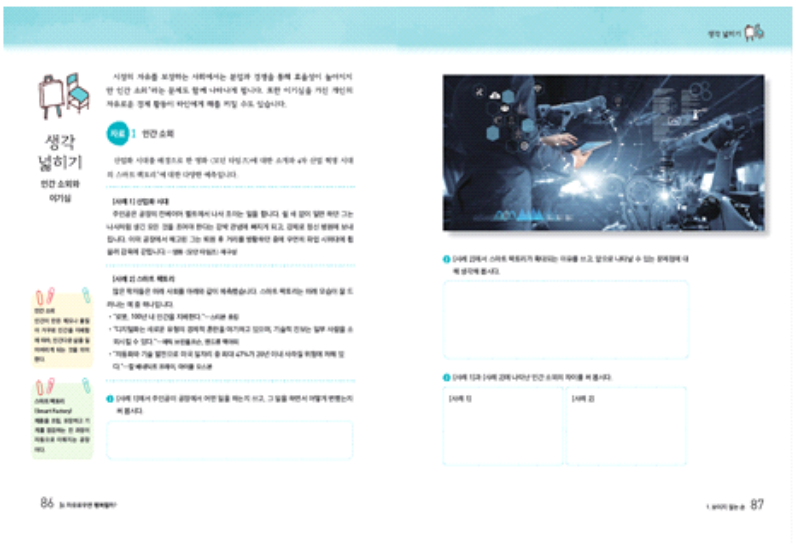
인권 교육

논쟁성 재현/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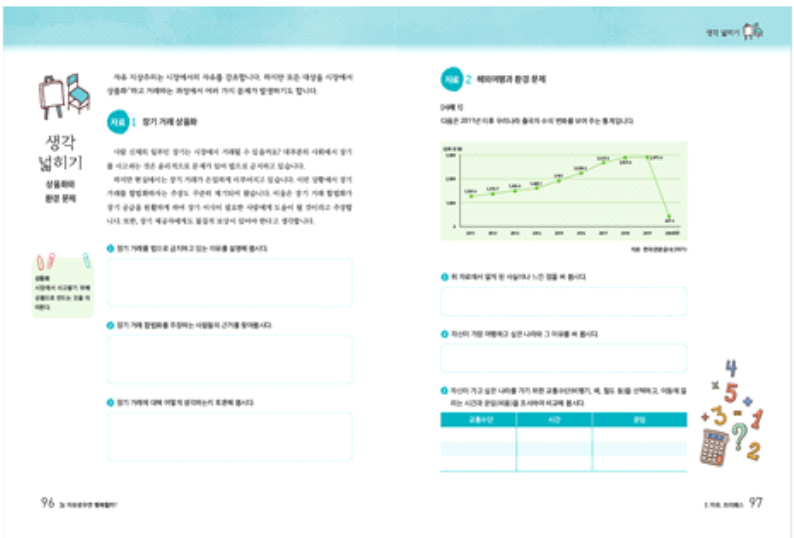


논쟁성
재현/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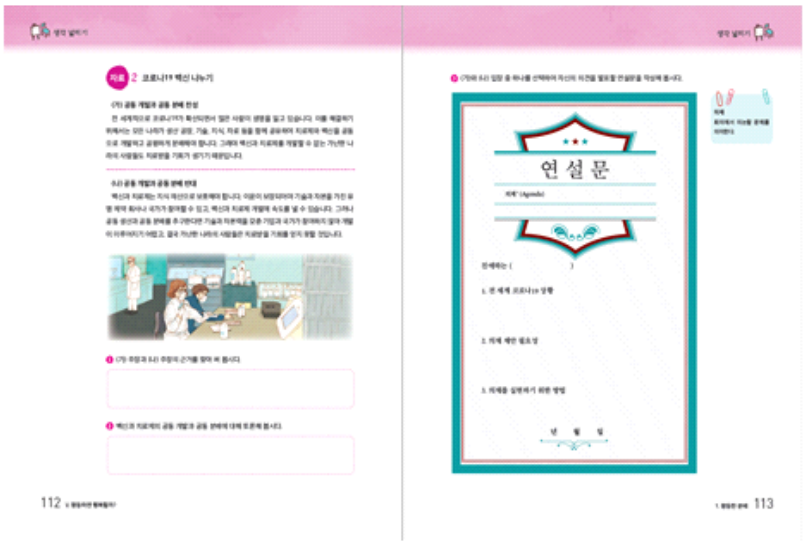
논쟁성
재현/
토론



논쟁성
재현/
토론



논쟁성 재현/ 토론



‘시민과 사회 참여’ 교육과정 이해하기

• 성격 : 사회 참여란, 자신이 속한 사회(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적인 행위이다. 자신이 속한 **학교와 마을 등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공동체 발전을 추구하는 행동**으로 **나와 이웃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실천하는 사회참여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돕는다.

• 목표 : **사회 문제를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민의 자질과 태도, 가치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자신이 속한 사회 혹은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바탕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 참여 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파악하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참여 방법을 익혀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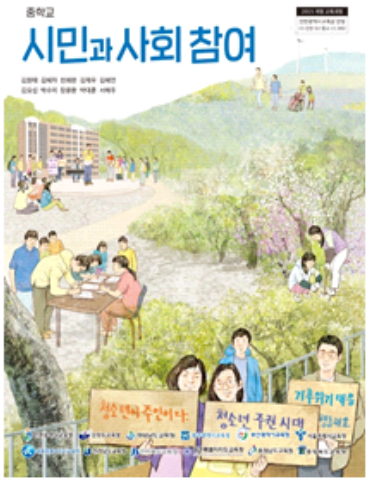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 1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시민과 참여	민주주의와 시민	민주시민은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며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주체적인 사람으로서 공동체의 현안에 관심을 갖고 공적인 가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 민주주의와 시민 · 함께 살기 위한 법과 규칙 · 시민의 역량
	사회 참여의 개념 및 중요성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도시, 국가 나아가 인류 공동체의 인간다운 성장을 위해 공공선을 추구하는 사회적 실천 활동인 사회참여는 민주주의와 정의, 평화를 더 성숙하게 하는 힘이다.	·사회참여의 개념 ·사회참여의 권리 ·사회참여의 중요성
	사회 참여 방법	다양한 사회참여의 방법을 여러 맥락에서 알아보고 분석하는 과정은 능동적이고 깨어 있는 시민의 소양이다.	· 사회참여의 방법 · 사회참여 계획 수립
학교와 사회참여	학교 상점, 행사 참여	학교 상점(교가, 표지석 등)과 학교 행사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은 학생을 학교 교육의 주체로 받들음하게 한다.	· 학생 참여의 근거 · 학교 상점, 행사 참여
	학교 규칙, 급식 참여	학교 규칙, 급식, 학교장 간담회 등 학교의 정책 결정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하여 학생이 시민이자 교육의 주체로서 자기결정권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	· 학생자치의 개념 · 급식, 학교 규칙, 학교장 간담회 참여
	학교 공간 참여	학교 공간은 학생들의 배움, 쉼, 삶의 공간으로서 학생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는 공간주권에 대한 시민의식을 함양시킨다.	· 학생 참여 공간 혁신 · 학생자치실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 2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지역(마을)과 사회참여	마을을 바꾸는 사회 참여	학생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 활동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높인다.	· 마을교육공동체 · 우리 마을 알아보기 ·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주민 참여	지역시민사회단체의 사회참여 활동에 대하여 알아보고 실천하며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주민참여 방법을 익히고 문제를 해결한다.	· 지역시민사회단체 · 주민참여예산제
국가와 사회참여	주권과 선거	주권자로서의 시민의 의미와 선거제도를 활용한 시민의 정치참여로 민주시민성을 함양한다.	· 주권자 시민 · 선거와 참여
	국가 공공정책 참여	시민은 국가 공공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 국민제안 청원 정보공개 · 사회경제적 기업
동아시아와 사회참여	역사와 교류	동아시아의 역사적 관계를 이해하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국가, 주변 국가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사 알리기 및 동아시아 국가 간 역사와 문화의 상호 교류를 통해 동아시아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한다.	·동아시아의 역사적 관계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 교류 ·한국사 바로 알리기
	환경과 공존	환경 문제는 어느 한 개인과 사회, 국가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동아시아 시민으로서 환경 정의의 추구와 공존을 위한 시민적 참여가 필요함을 인식한다.	·동아시아의 환경과 환경 문제의 특성 ·동아시아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 방향
	평화와 협력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사회문제와 갈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 참여를 통해 평화와 공존의 동아시아 발전에 기여한다.	·동아시아의 사회문제와 갈등 ·동아시아의 공존을 위한 협력

시민과 사회 참여 '인정도서'



[개발 과정]

2020. 2. 민주학교 운영 위한 교육과정 개발

2020. 8.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심의 요청

2020. 11. 교육과정 승인

2021. 02. 인정도서 심의 제출

2021. 5. 26. 인정 승인

2021. 5. 28. 인천외 11개 시도교육청 사용하기로 협력

특징

- 인천교육의 중심의 방향인 학생자치(공간혁신), 마을교육공동체, 국가참여(선거), 동아시아(평화, 생태)를 대단원으로 구성
- 논쟁성을 바탕으로 학생의 판단을 강조
- 단원을 '공감'-'이해'-'판단'-'행동' 으로 구성하여 배움을 구조화
- 학생들의 주체성을 위해 학생의 선택을 강조

2단원 소개

Ⅱ. 학교와 사회 참여

1. 학교 상징, 행사 참여
2. 학교 규칙, 급식 참여
3. 학교 공간 참여

학교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행사가 진행되고, 운영에서 논술소리가 들리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학교를 좋아하나요? 혹시 학교에 가고 싶고, 학교에 오래 머물고 싶나요? 내가 가고 싶은 학교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학교는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곳이 공간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민으로, 교육의 주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학생들은 민주적 의사 결정에 참여하며 학교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 서로 협력하며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학교 공간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학교에서의 참여에 대해 배웁니다. 학교 상징, 학교 행사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을 배웁니다. 그리고 학급과 학교의 규칙, 급식, 학교의 정책 결정 등에 학생들이 참여하여 학교의 주인으로 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고 실천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배움, 쉼, 삶의 공간인 학교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학생들이 함께 공간으로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2 학교 규칙, 급식 참여

학생이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학교 규칙과 급식에 의견을 반영해 봅시다.

공감해요

학교는 다양한 구성원이 모인 곳입니다. 그중에서 학생의 존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학생은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료 학생은 학교에서 어떤 존재인가?

64 2. 학교와 사회 참여

공감해요

교육기본법에서 교육 당사자는 학습자, 보호자, 교원을 의미하며 교육 당사자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학생)는 인격과 개성을 존중받고 자신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학교 규칙을 준수하고, 교원의 교육 연구 활동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보호자(학부모)는 학습자가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교원(교직원)은 전문성을 존중받으며 학습자를 가르치고,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육기본법 제3장 제구절

❶ 교육 당사자(학습자, 보호자, 교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❷ 우리 학교에서 학생은 교육 당사자로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있나요?

2. 학교 규칙, 급식 참여 65

이해해요

'학생자치'라는 말을 들어 본 적 있나요?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나요? 학생자치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자료 학생자치란?

학생자치는 학생이 시민으로서 자기 결정권'과 책임감을 가지고 민주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내외의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자치 활동을 만들어 갑니다.

자기 결정권
개인의 이유로로 상대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학생자치 보호하기
- 자율성 : 나와 우리는 자기 결정권과 책임감을 갖는다
- 공공성 : 나와 우리는 함께 논의하고 공익을 추구한다
- 연대성 : 나와 우리는 서로 공감하고 소속감을 가지며 행동한다

❶ 자기 결정권과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❷ 학생자치활동에서 공공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❸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누구의 연대할 수 있을까요?

68 2. 학교와 사회 참여

이해해요

사례 학생이 만들어 가는 학교 급식

	주제
1	학교 급식 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학생을 포함하기 학생자치회 부서로 '교육 급식부' 만들기
2	학급자치회에서 건강한 급식 문화를 위한 '학교 급식 약속' 만들기
3	학생자치회 '희망 급식의 날' 운영
4	학생 주도 프로젝트 '영양·식생활 체험전' 운영
5	지속 가능한 건강한 지구 만들기 프로젝트 실시 (음식물 1/3버기 줄이기 캠페인)
6	교육 과정과 연계된 '학생 제안 식단제' 운영
7	학생대의원회 주관 '급식 소통의 날' 실시

69 2. 학교 규칙, 급식 참여

판단해요

학생은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우리 학교의 규칙을 살펴보고, 학교의 규칙과 문화를 바꾸어 봅시다.

활동 학교 규칙 조사하기

우리 학교의 규칙을 조사해 봅시다.

1. 새롭게 알게 된 학교 규칙을 알아 봅시다.

2. 새롭게 추가하거나, 기존의 것을 없애거나, 바꾸고 싶은 학교 규칙을 찾아봅시다.
- 이 규칙이 어떤 불편함을 주고 있나요? 또는 어떤 가치를 훼손하고 있나요?
-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제 해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일까요?

3. 아래 질문을 읽어 보며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 우리 학교 규칙 중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수정되어야 할 내용 한 가지를 고른다면 무엇일까요?
- 내 친구에 다른 친구들도 공감할까요?
- 내 친구에 반대하는 입장의 학친은 무엇인가요?
- 문제의 개선은 지금 바로 이루어질 수 있나요? 아니,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가요?
-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 해결된다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전교생에게도 그러한가요? 우리 가족, 지역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나요?

자료 학칙 제·개정 절차

절차	내용
학칙 제·개정위원회(학생, 학부모, 교원) 구성	학칙 제·개정위원회(학생, 학부모, 교원) 구성
	제·개정안 입안
	학생 등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및 규칙안 마련 (학생 회의, 설문 조사)
	토론회 개최 및 최종안 마련(학교 실정에 따라 운영)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학칙 공포·시행	학교장 결재
	학칙 알리기
	학칙 안내 및 홍보
	적용, 평가

자료 : ○○교육청(2020), '학생생활교육 매뉴'

행동해요

활동 교장 선생님과 협의하기

❶ 평소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확인하고, 학급 회의를 실시하여 교장 선생님과 협의할 내용(학교에 바라는 점 등)을 선정합니다.

❷ 학급 회의에서 선정한 안건을 학년 회의, 전체 학생 회의 안건으로 다루어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❸ 교장실에 방문하여 면담을 신청하고, 협의 날짜, 시간 등을 정합니다.

협의 일시:
협의 장소:
협의 내용:

❹ 협의 결과를 학급, 학년, 학교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학교 구성원은 이를 실천하고 평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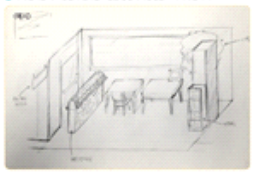
협의 결과

❺ 위와 비슷한 방법으로 다른 선생님과 협의하여 학교 급식, 학교 생활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학생자치활동을 해 봅시다.

공간 혁신

❶ 내가 원하는 학교 공간이 반영된 모습을 상상하여 공간을 스케치해 봅시다.

(예시)



내가 원하는 학교 공간 스케치

❷ 준비한 스케치를 바탕으로 블록, 우드 록 또는 클레이를 활용하여 모형을 만들어 봅시다.

❸ 나의 학교 공간에 담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 친구들과 공유해 봅시다.

- 지는 이 공간이 이름을 _____(이)라고 짓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_____ 지기 때문입니다.

- 이 공간에서 가장 꼭 보고 싶은 일은 _____ 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 이 공간은 우리 학교에서 _____ 번째로 좋아하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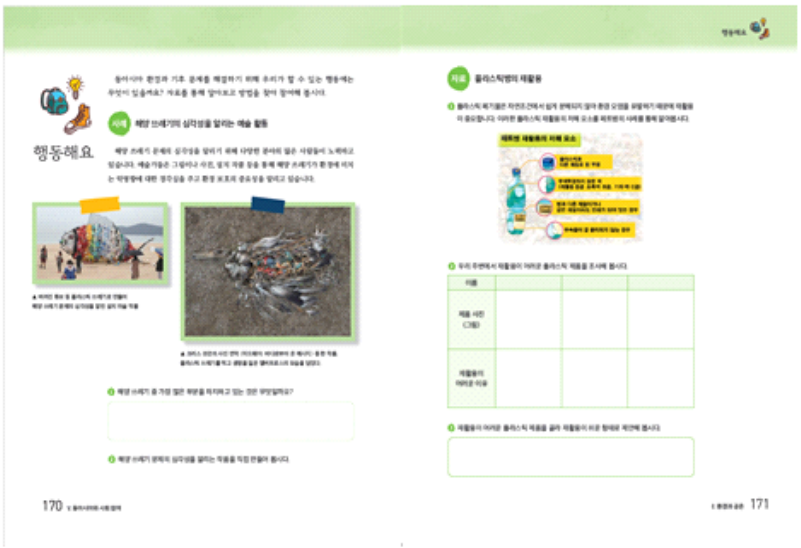
- 이 공간은 원래 _____ 공간입니다.
그러나 _____ (으)로 바꿀 계획을 가지 모형을 만들어 보니 정말로 나만의 공간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좋습니다.

- 지는 이 공간이 지금 친구들뿐만 아니라 후배들에게도 넓이 이용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나년에 입학하는 신입생 후배들에게 아래와 같이 이 공간을 홍보하고 싶습니다.

"_____"

생태 교육

생태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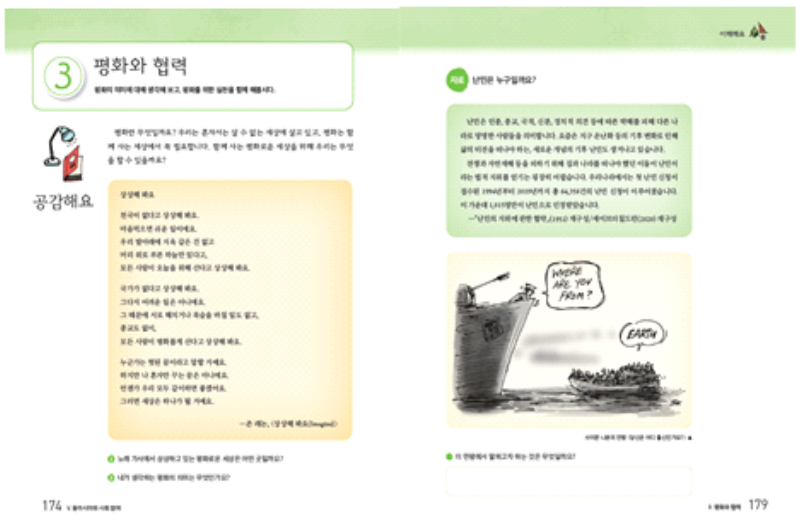


인권 교육

인권 교육

행동해요

평화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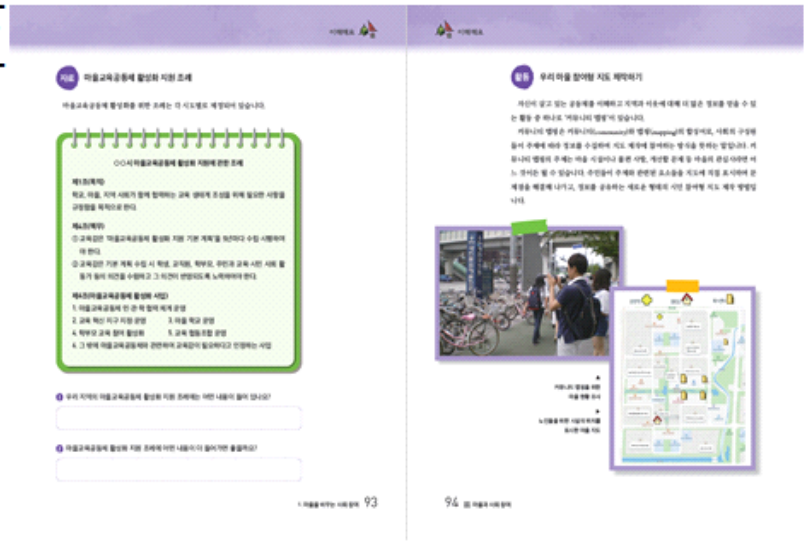


공감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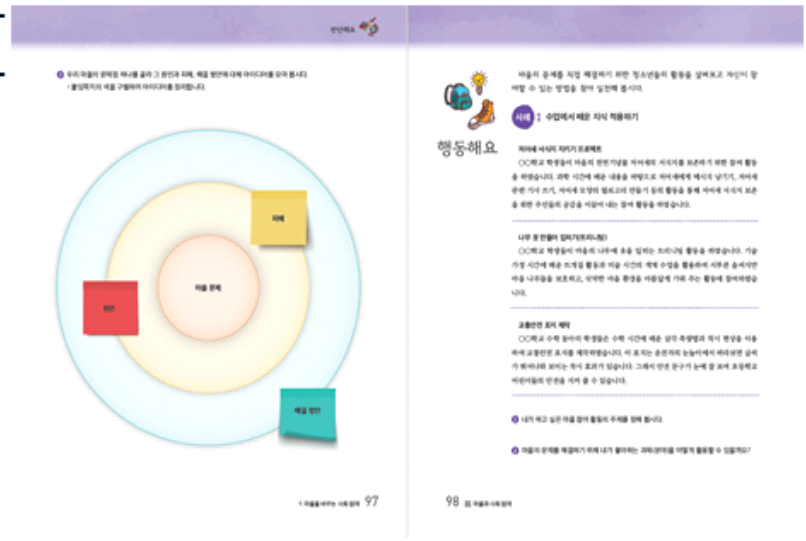
평화 교육

행동해요

마을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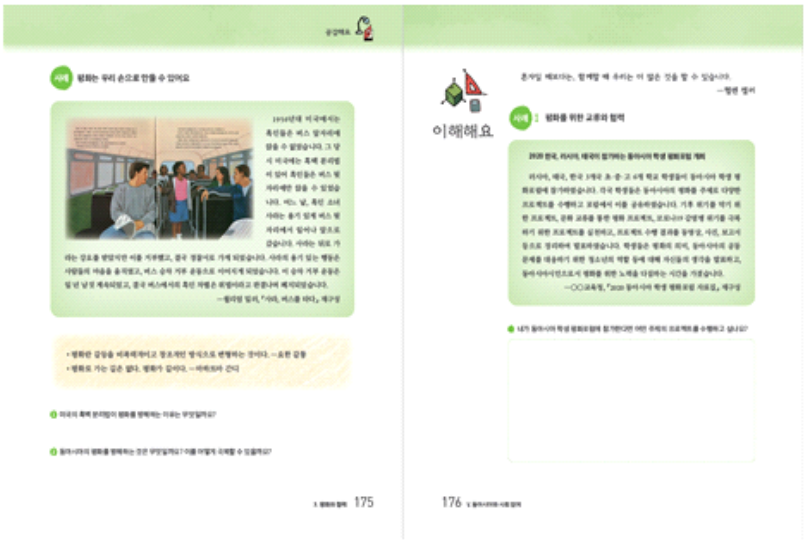
마을 교육



선거 교육

선거 교육

동아시아 시민 교육



동아시아 시민 교육

동아시아 시민교육

교과교육과정 편성

▪ 편성 영역
- 교과교육과정 편성
  : '선택' 교과(군) 과목명 - '시민과 사회 정의', '시민과 사회 참여'
- 2022 편성 방법
  :신설과목 개설 승인 신청(해당 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제출, 2021.09 예정)
  (타시도 승인, 타 학교에서 신청하여 승인된 교과목 개설 신청 가능)
- 나이스 교과서 신청
  : '기타' 교과(군)에 '시민과 사회 정의', '시민과 사회 참여'
- 교과 교육을 위한 보조교재로 활용
  :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 보조교재로 활용

교과교육과정 외 편성 1

▪ 자유학년제
- 주제 선택 활동
- 동아리 활동
- 진로탐색 활동 등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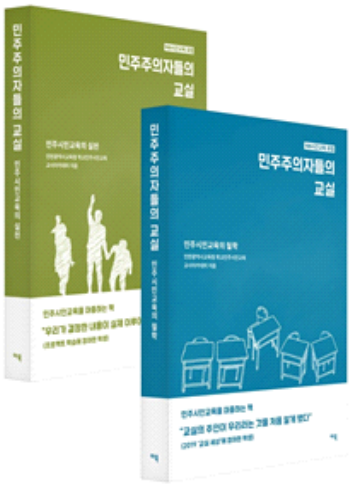
▪ 범교과 학습 주제
-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환경지속가능 발전 교육, 통일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등

교과교육과정 외 편성 2

- 창의적 체험활동
  - 자율활동 : 학생자치 교육
  - 동아리활동 : 토론 동아리, 사회참여 동아리 등
  - 봉사활동 : 마을 연계 사회 참여
  - 진로활동 : 진로 연계 사회 참여

- 계기교육
  - 공직선거 교육, 학생자치회 선거교육 등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도서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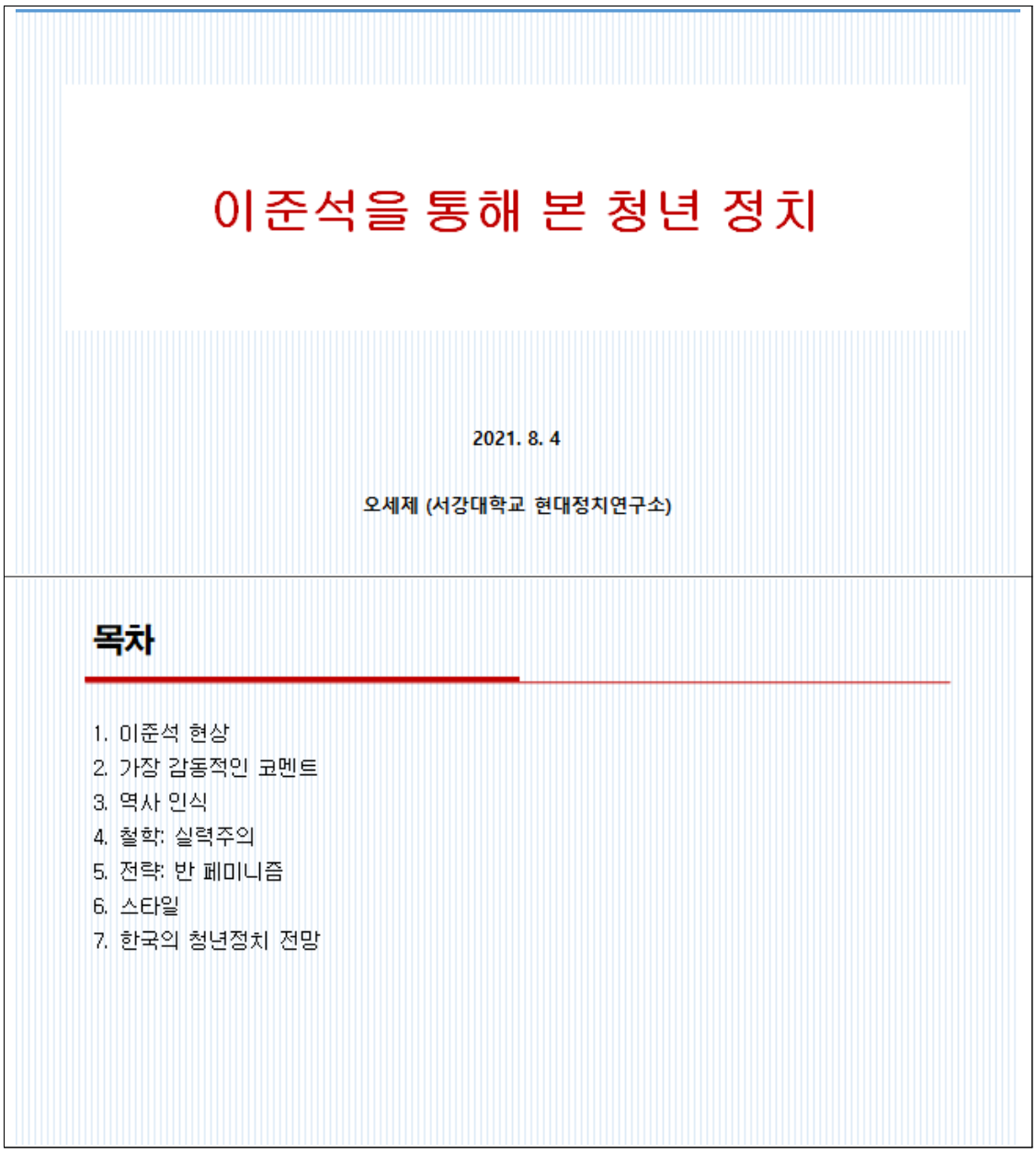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선생님들이
2019~2020년까지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공부하고
실천한 사례를 모은 책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읽어 주세요~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준석을 통해 본 청년 정치

오세제(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1. 이준석 현상

- 36세(85년생, 서울), 서울과학고, 하버드대 졸업. 벤처기업 경영. 2011년 박근혜 전 대통령 새누리당 비대위원 발탁. 2016 총선, 2018 재보궐, 2020 총선 출마
- 현정 사상 첫 30대 원내교섭단체 대표
- 전당대회에서 4선, 5선 의원 물리치고 43.82% 득표해 당선(나경원 37.14%)
- 청와대의 25살 대학생의 청년비서관 임명
- 민주당에서 박용진의원 주목
- 민주당 송영길대표 개혁, 경청 노력에도 주목도 옅어짐
- 윤석열, 안철수 의원의 거취에도 영향
- 전광훈목사 등 아스팔트 우파의 경우 노기 띤 반응
- 이대남의 정치적 효용감 증대

2. 가장 감동적인 코멘트

- "이준석 본인은 보통 청년들하곤 매우 유리된 삶을 살지 않았나. 하버드대 나왔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표한테 '픽'(pick) 돼서 '프리패스 하이웨이' 같은 길로 어마어마한 고속 성장하신 분 아닌가. 지금 '0선'이라 하더라도 온갖 방송에 나와서 인지도 쌓았다. 이준석처럼 살 수 있는 청년은 이 세상에 굉장히 드물다. 이준석 본인이 '이대남' 대변하는 정체성 가진 것 같지만, 대부분의 이대남은 이준석처럼 살지 않는다. 평택항에서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이선호처럼 많은 이대남들은 위험한 노동 현장에서 일하다 많이 다친다. 만약 이 사회의 젊은 남성들을 위해 정치하겠다고 하면 그런 문제에 관심 갖고 목소리 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준석이 이선호에 대해 언급한 것을 본 적이 없다. 이준석의 삶엔 이선호 같은 이대남은 없는 거다. 그의 말대로 여성할당제가 없어지면 남성 청년들이 살기 좋아질까? 이선호 같은 청년은 여성할당제 때문에 고통 받는 걸까? 이준석의 발언이 대중의 정서적 반응을 끌어낼 순 있어도 가난하거나 평범한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동떨어져 있다."(강민진, 2021)

3. 역사 인식

- 국민의 힘 당 대표 경선에서 극우적 관점과 다른 관점의 후보 등장 고무적.
- 이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 518민주묘지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 이어서 제주도에 가서 4.3 폄훼 세력과 단절 선언
- 이준석도 광주, 제주서 김위원장의 뜻을 확인하고 대구에서 정견 발표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당시 정당했다'고 공개 발언
- 불행한 한국 현대사에서 보수의 잘못 인정
- 새로운 보수를 정립하고자 하는 한국 보수정치사에 있어서 분기점 형성 사건
- 탄핵에 찬성하고 분당했던 바른미래당
- 이후 다시 통합한 보수정당에서 당 대표 후보가 정면 돌파로 탄핵 정당화, 당선

- 여전히 이견 가진 사람들 존재함에도 불구 이 사실은 한국 보수정당의 재정립 사건
- 친미반공주의의 깃발 아래 친일파도 품고,권위주의 정당화,반민주주의와 인권탄압 묵인했던 보수가 생존 위해 자신의 역사적 한계 인정
- 물론 노선의 한계 인정하는 성찰의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음
- 그러나 박근혜를 넘어서는 보수의 변신을 공식적으로 시작
- 변화된 환경에서 생존과 정권교체를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 동기지만 변화는 다시 돌아서기 어려운 성격 가짐
- 부정선거 주장자, 박 이 사면 주장 태극기부대와 공식적으로 같이 못할 것.
- 이준석현상은 이런 역사인식의 변화를 보고 다음에 실력주의 같은 철학, 반페미니즘 같은 전략, 세대교체 같은 새 인물과 스타일과 문화적 신선함 평가해야 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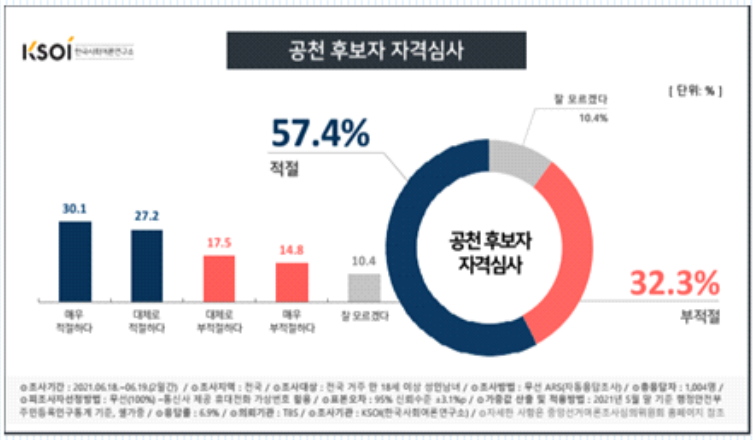
4. 철학: 실력주의

- 이준석이 공정한 기준이라고 강조한 실력주의는 난무했던 전근대적 연관주의나 연고주의, 가부장제에 비해 일단 신선
- 개인의 노력을 통한 공정한 경쟁 강조한다는 점에서.
- 그러나 기회의 공정이 보장되지 않는 현재 이런 주장은 그의 한계 드러냄
- 풍요로운 세대로 태어나서 좋은 학벌과 연고를 통해 발탁되고 10년의 정치권 생활을 버텨내고 승리의 기술을 익힌 자, 30대의 나이로 대중의 마음을 읽고 따라가는 자, 즉 경쟁에서 승자의 오만한 철학
- 그가 얘기하는 공정, 그가 대변하고 의지하는 20대 남자들이 주장하는 공정이 보편적인 것이 될 수 없음은 명백
- 그의 공정은 무한경쟁 전제. 무한경쟁 독려하는 신자유주의가 길러낸 시대의 아들

- 그의 관점에서 보면 여성 청년할당제는 없애야 하는 비합리적 제도. 그러나 국민의힘에는 현재 청년할당제가 없다. 오직 여성할당제를 공격하고 있는 것임
- 이런 태도 때문에 갈라치기 통한 노이즈 마케팅의 선구자,갈등 조장해 이익 취하는 자라는 비판
- 현재같이 여성과 청년의 정치적 진출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제도적으로 대표성 만들기 위한 방법 필요
- 공직후보자는 자격시험을 치자는 생각은 엘리트주의의 전형적 발상이고 민주주의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발상임
- 사기업에서 시험 치러 적절한 인재를 뽑는 것과 공직선거에 시민 모두가 평등하게 참여해 선출직을 뽑는 차이를 구별하지 못함
- 이것이 역사적 반성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변신이 획기적일 것이라 보기 어려운 이유

-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6월 17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 이 대표의 공직후보자 자격시험 도입 공약에 "선출직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제도에 의하지 않고 국민이 선출하도록 만든 제도이고, 이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국민주권주의와 관련돼 있다"면서 "그런데 여기에서 시험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의 대원칙과 맞지 않고, 그것은 설사 정당에서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 공천권 자체가 국민의 몫이라는 지적

<그림 1>공천후보자 자격심사에 대한 여론조사(TBS(KSOI)2021.6.20.)



5. 전략: 반 페미니즘

- 그의 이력 중 대표적인 것이 반 페미니즘의 선봉이라는 것. 그의 길지 않은 정치 이력에서 이미 이준석표라고 인정받는 핵심적 내용
- 다수의 중진 정치인들도 이런 정치적 아젠다를 가지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대단함. 이런 요인이 그를 대중정치인으로의 등장하게 하고 대표 당선에 이르게 한 힘일 것
- 현 정부의 실정에 크게 기인하지만 재보궐선거에 서울시장 당선시킨 힘. 혼자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아젠다의 대표 주자로서 객관적 업적이 있다는 것
- 이 세대정치의 주역이란 사실도 또한 그의 대표 당선에 기여했을 것
- 스스로 생존을 위해 방송 출연했다고 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인지도 높이고 성장
- 그러나 연일 언론지상에 보도되는 여성에 대한 심각한 범죄와 차별을 목도하면서도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권력에의 집념
- 정치적 성공을 위해 일상적으로 여성 일반을 대상화하고 비하하며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비정상적

6. 스타일

- 기성 정치에 대한 실망과 환멸이 새롭게 싹 바꿔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 불러옴, 세대교체 요구
- 탄핵 이후 보수야당은 선거에서 연거푸 지고도 황교안과 나경원, 주호영으로 대표되는 전형적인 보수의 얼굴로 집권여당을 공격, 강경투쟁 주도
- 스스로 변신하지 못하다가 30대 이준석의 존재로 말미암아 변화를 강제 당함
- 그가 공약했고 실행에 옮긴 토론배틀 통한 대변인 선발도 신선
- 사실 30대 0선 이준석의 대표 당선이란 사실 자체도 보수정당사에 처음 있는 일
-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노선, 문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낳고 있음
- 당 운영과 국민의당 합당, 외부 대선주자 영입 및 관리 등 우려도 제기됨
- 당원들의 전략적 선택과 보수 언론의 우호적 보도로 여론은 민주당 비해 좋음
- 당내 기반이 튼튼하진 않아서 제동도 걸리고 하겠지만 보수 혁신의 깃발 들고 많이 변화하길 바람
- 분명한 것은 과거 국민의힘이 '천미 반공'을 제1의 정치적 아젠다로 삼아왔다면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국민의힘 새로운 지도부는 기존과 다른 어젠다로 보수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나갈 가능성

7. 한국의 청년정치 전망

- 촛불과 탄핵 이후 유권자 의식의 변화,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정치 효능감 증대
- 청년의 투표율 증대

< 표 1> 역대 총선 투표율

*음영은 투표율 60% 미상

구분	제14대 1992년	제15대 1996년	제16대 2000년	제17대 2004년	제18대 2008년	제19대 2012년	제20대 2016년	제21대 2020년
투표율	71.9%	63.9%	57.2%	60.6%	46.1%	54.2%	58.0%	66.2%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오세제 2020)

<표 2> 세대별 여야 지지성향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전체
정부지원 여당당선	42%	64%	60%	56%	32%	49%
정부견제 야당당선	39%	25%	35%	34%	54%	39%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397호(2020년 4월 3주)(오세제 2020)

- 청년 출마자 및 당선자 OECD내 최저

▪ <표 3>정당별 청년 관련 당헌 당규 비교표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힘
청년 연령 규정	만 35세 이하	만 45세 이하	만 45세 미만
당직과 공직 후보 결정 시 청년 관련 조항	• 중앙과 지역의 대의기구 구성 시 10% 이상 포함(3개월 내 할당 정수대로 지키지 않으면 단위의 지위와 권한 정지) •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청년 당원 10% 이상 할당(5인 이상 선출 선거구 적용)	• 중앙당 및 시·도당 주요당직과 각급 위원회 구성 10% 이상 포함 • 경선 시 만 29세 이하는 25% 가산, 만 30세 이상 만 35세 이하는 20% 가산, 만 36세 이상 만 42세 15% 가산, 만 43세 이상 만 45세는 10% 가산 • 경선에 참여한 정치신인은 득표수의 10% 이상 20% 이하 가산 • 비례대표 국회의원 추천 시 20대 후보는 득표수의 30% 가산 •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지방의원 1명 이상 추천 • 국회의원 후보 10%, 광역의원 20%, 기초의원 30% 추천	• 주요 당직 및 각종 위원회 구성시 청년을 20% 이상 포함 •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경선 시 20% 가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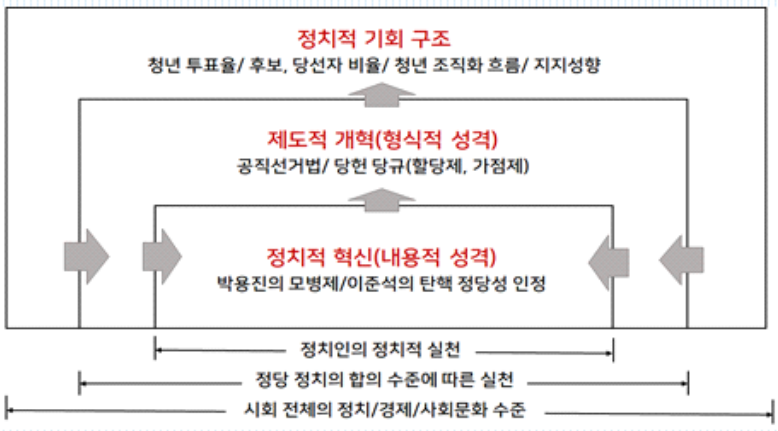
▪ 민주당이 총선과 지선에 지역에서 경선에 나선 청년들에게 청년 할당과 가산점을 주는 반면, 정의당은 공직선거에 나서는 청년들에게 당내 경선에 아무 지원이 없고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선거는 아니고 지방선거 지역 경선 시 20% 가산점만 주고 있음.

▪ 세 정당에 공통적인 점은 비례대표에 대한 여성 50% 할당과 모든 정당이 단체장에 대해서는 청년은 물론 여성에게도 가점이나 할당을 하지 않고 있음

▪ 청년층의 지지를 받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제도가 교육적 효과를 갖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조속히 청년에게 전향적인 당헌 당규 개정에 나서야 할 것임

▪ 2021년 우리 청년들을 둘러싼 정치적 기회구조는 청년정책의 진전과 청년의 참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법과 당헌 당규 개정 통해 정치인의 혁신적 정책과 사회적 합의 통해 정치적 동원 실현할 수 있다.

<그림 2> 청년정치 분석틀



인천 민주주의 역사 톺아보기

이우재(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주주의란?

- 민주(民主), 즉 국민이 주인임이, 다시 말해 국민주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것.
- 또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것.
- 나아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것.

민주주의의 역사

- 민주주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임.
- 따라서 민주주의의 역사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 즉 민주화운동사임.

1, 1972년 10월 17일 유신체제의 성립부터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의 사망까지

- 저항의 일상화
- 본격적인 민주화운동의 시작
- 지식인, 학생들 민중과의 결합, 혁명을 모색하기 시작하다.

1) 유신 이전의 민주화운동

이승만정권 하의 민주화운동

- 1954년 11월 29일 사사오입 개헌
  * 대통령의 3선 연임 금지 조항의 철폐로 이승만의 종신집권이 가능해짐.
  * 당시 국회의원 재적의원 수가 203명으로 개헌을 하려면 재적의원의 2/3인 136명이 찬성해야 했으나 실제 찬성 의원은 135명이었음. 따라서 당시 사회를 맡았던 국회부의장 최순주가 부결을 선포함. 그러나 이승만정권은 203명의 2/3가 135.33..명이므로 사사오입하여 135명이라고 억지를 부려 개헌안을 통과시킴.

- 1959년 7월 31일 인천 강화도 출신의 정치인으로, 당시 이승만 종신집권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조봉암의 사형이 집행됨.

4.19혁명

-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제 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정권이 대대적인 부정선거, 관권선거를 자행함.
- 이에 1960년 2월 28일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의 시위를 필두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결국 4월 26일 이승만이 하야하고 민주당 정권이 수립됨.

- 4월 19일 인천공업고등학교(현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인천지역에서 최초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를 전개함.

- 이에 자극받아 인천지역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시위가 계속 이어짐. 특히 22일에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여 수천 명의 시위대가 동인천역, 경동사거리, 신흥동로터리 일대를 휩쓸고 다니며 시위를 전개하고 경찰과 투석전까지 벌임.

- 21일에는 인하공대 학생들이 처음으로 시위에 나섬. 그러나 전반적으로 인하공대

생들의 시위 참여는 소극적이었음.
- 인천 시민들도 전반적으로 시위에 적극적이지는 않았음.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위시한 정치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함.

한일회담반대투쟁:
- 1964년 박정희 정권이 한일국교정상화를 추진하면서 그에 반대한 야당과 학생들이 1964년("6.3사태")과 1965년 두 해에 걸쳐 전개한 투쟁
- 1964년 3월 27일 인천시내 7개 중고등학교 학생들 9,500여 명이 모여 "대일굴욕외교반대" 등을 외치며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벌임.
- 1965년 6월 22일 인하공과대학 학생800여 명이 학내에서 "한일회담반대성토대회"를 개최하고 가두시위를 벌여 숭의동 사거리 부근에서 경찰과 투석전을 벌임.

삼선개헌반대투쟁:
- 1969년 박정희가 대통령 3선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반대한 야당과 학생들이 1969년 6월부터 12월까지 지속한 개헌저지 투쟁
- 1969년 7월 5일 인하공대학생 200여 명이 3선개헌반대 성토대회를 개최함.
- 9월 11일에도 인하공대학생 500여 명이 성토대회를 개최함.
- 인하공과대학 학생 시위로 인해 9월 12일부터 무기한 휴강에 들어가 10월 20일 개강함.

*** 야당과 지식인, 학생이 중심이었다.
*** 주어진 문제에 대한 일시적 투쟁이었으며, 따라서 연속성을 갖지 못하고 제기된 문제가 사라지면서 소멸하였다.
***** 인천은 인하공과대학이 공과대학인 관계로 학생운동이 활발하지 못했음.**

2) 유신체제의 성립

1972년 10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을 중지함. - 헌법을 무시한 군사 쿠데타

1972년 11월 21일 국민투표에 의해 유신헌법이 통과됨.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
-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선출(간선제)
- 대통령 연임 제한 조항의 폐지(종신집권)
- 국회의원 1/3을 대통령이 임명, 법관 임명도 대통령이 함(대통령 일인 독재국가)
- 필요시 일부 헌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 발동권

*** 민주주의의 종식
*** 박정희 일인 종신집권 체제의 성립

3)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 - 민주화운동의 성립.

1973년 10월 2일 서울대 문리대 학생들의 유신헌법 철폐 시위. 20명 구속
- 최초의 유신 반대 시위로 이후 전국의 대학가로 유신반대 시위가 확산됨.

- 1973년 11월 23일 인하대 총학생회 주관으로 5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임(1972년 인하대학이 종합대학으로 승격됨.)

1973년 12월 장준하, 백기완 등이 주도하는 개헌청원백만인서명운동이 시작되어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기 시작함.

1974년 1월 긴급조치 1호 선포

- 유신헌법에 대한 일체의 반대, 비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영장 없이 체포, 구속하며, 비상군법회의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함.

1974년 4월 "민청학련 사건"

-전국에 걸쳐 203명이 비상군법회의에서 사형,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음(긴급조치 4호)

1974년 가을 대학가에서 구속학생석방과 유신헌법철폐를 요구하는 시위가 재발함.
뿐만 아니라 민청학련 사건에 신부, 목사들이 연루되면서 가톨릭과 기독교까지 반유신 대열에 합류함.

- 1974년 11월 6일 인하대 학생 천여 명이 대강당에 모여 "유신철폐", "구속학생 석방"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가짐. 이날의 집회는 기독학생회, 샘동인회 등 학내 서클들이 중심이 되었음.

- 1974년 8월 26일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된 지학순 주교 석방을 위한 기도회가 답동성당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주최로 인천교구와 전국의 사제 130여 명과 신자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림.

- 1974년 10월 20일 인천교구 소속 신부, 수녀, 신자 2,500여 명이 답동성당에서 성년대회 기도회 후에 "민주헌정실시", "유신헌법철폐", "구속자 석방" 등을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임.

- 1974년 11월 20일 인천교구 소속 사제단과 신자 1,200여 명이 답동성당에 모여 구속 중인 지학순주교의 석방과 인권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가짐.

***** 가톨릭이 민주화운동에 적극 나서게 된 계기가 됨. 인천교구는 이후 인천 민주화운동의 중심으로 자리잡았고, 주교좌가 있는 답동성당과 가톨릭회관은 인천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성지가 되었음.**

1975년 2월 12일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

1975년 2월 15일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된 학생 대부분 형집행정지로 석방됨.

1975년 3월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동료 학생들의 복교 문제로 학생 시위가 재발하기 시작하여 유신반대 시위로 확산되어 감.
- 1975년 4월 8일 긴급조치 7호를 선포하여 학생 시위가 심했던 고려대에 휴교령을 내림.

- 1975년 4월 11일 서울대학생 김상진이 학내 시위 도중 할복자살함.

- 1975년 4월 10일 인하대 총학생회 주도로 비상학생총회가 열려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라", "자유와 민주를 회복하라" 등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용현고개까지 가두시위를 벌임. 이날의 시위로 총학생회장 문희탁 등이 구속됨.

4) 1975년 5월 13일 긴급조치 9호 선포(긴급조치9호 시대)

1975년 5월 13일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됨 - 최후의 긴급조치이자 완결판.

- 긴급조치 1호와 비슷하나, 비상군법회의가 아닌 일반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하였고, 형량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조정함.
- 75년 봄 월남의 패망을 빌미로 국가안보상의 긴급한 조치로 선포하였으나, 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사실상 일상 조치로 기능함.
-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된 학생들은 석방된 후에도 학교 복학이 금지됨.
- 학생회를 해산하고 전국의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학도호국단을 결성하도록 하여 그 간부를 교장이나 총장이 임명하였음.
- 대학 내에 경찰과 정보기관원들이 상주하였음.

1975년 5월 22일 서울대학생들이 김상진열사 장례식을 거행하며 반유신 시위를 벌인 것이 긴급조치9호 위반 최초의 사건이었으나 1976년말까지 사실상 대학가에서 반유신 시위는 종적을 감춤.

- 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발표된 3.1민주구국성명이 이 시기 반유신 운동의 대표적 사건임. 윤보선, 김대중, 함석헌, 문익환, 지학순 등 재야 원로 들이 주축.
- 구속과 제명이라는 가혹한 조치가 일견 학생들을 위축시킨 듯했으나, 실제로는 많은 학생들을 직업적 민주화운동가로 성장시켰고, 그에 따라 학생운동이 지하화되고 조직화되었음.
- 점조직 형태로 지하화한 학생운동 조직들이 서울로부터 시작하여 조금씩 전국으로 확산되어 갔음.
- 특정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유신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일상적 운동으로 민주화운동이 자리잡아 가기 시작함(민주화운동이 정립되고 조직화됨)
- 야당과 구별되는 독립 세력으로서의 민주화운동권이 성립되어 가기 시작함(재야)

1977년부터 서울대, 연세대 등에서 학생들의 반유신 시위가 되살아나기 시작함.

- 1977년 4월, 10월, 11월 서울대에서 학생들의 반유신 시위가 일어남. 특히 10월 7일 발생한 시위로 긴급조치9호가 선포된 이후 최초로 서울대가 20일간의 휴업에 들어감.
- 1977년 10월 26일 연세대에서 학생들의 반유신 시위가 발생하여 긴급조치9호 이후 최초로 경찰의 제지를 뚫고 신촌로타리까지 가두 시위를 벌임.
- 1977년 11월 12일, 14일, 18일 서강대에서 연속적으로 반유신 시위가 일어남.

1977년 8월 19일 인천교구 사제단이 정의구현 전국사제단과 함께 답동성당에서 “정의 구현을 위한 특별기도회”를 개최함. 이날 신포시장과 동인천역을 향해 대형 스피커를 설치하고 유신독재를 규탄하는 방송을 진행함. 이 사건으로 9월 4일 김병상신부가 구속됨. 이 사건으로 가톨릭 신자들이 민주화운동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됨.

1978년 들어서는 대학생들의 반유신 시위가 더욱 활성화됨.

- 1978년 6월 26일에는 비록 산발적이고 소규모였을망정 광화문에서 대학생들의 가두시위가 일어남.
- 1978년 10월에는 17일 유신 선포일을 기해 광화문에서 대대적인 가두시위를 벌일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던 서울 시내 6개대학 연합 그룹이 사전에 경찰에 의해 대거 체포됨.
- **1978년 9월 28일 인하대생 조용호, 안영근 등이 “민주회복에 관한 인하대생의 선언문”이란 반유신 유인물을 살포함.**

- 1978년 10월 17일 인하대생 조용호, 김명식, 곽한왕 등이 유신철폐를 주장하는 유인물을 교내에 살포함.
- 1978년 11월 3일 인하대생 김상우, 박성룡, 서병희 등이 유신철폐를 요구하는 학내 시위를 벌여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구속됨.
- 1978년 11월 13일 인하대생 조용호, 안영근, 양홍영 등이 유신철폐를 요구하는 유인물을 살포하다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구속됨. 구속자들은 1977년 조직된 인하대 비공식 독서 모임 "지성"의 회원이었음.

1978년 12월 10일 앰네스티 인천 지부가 설립됨. 황상근 신부가 지부장을 맡았으나 실제 운영은 민주화운동에 관심이 많은 지역 청년들이 중심이 되었음. 이후 앰네스티 인천 지부는 1980년 5월 해산될 때까지 인천 민주화운동의 구심으로 활동하였음.

1978년 인천에서 서울로 통학하는 대학생들이 주축이 된 사회과학 독서모임 "기러기"와 "사우", "통학생회"가 창립됨. 이들을 흔히 지티(지역팀)라고 불렀는데, 이후 인하대와 함께 80년대 인천 학생운동의 중심이 되었음.

-> 인천 민주화운동권이 형성됨.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 마산 일대에서 유신 독재에 항거하는 대규모 시위 발생(부마항쟁)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피살 -> 유신독재의 종식

5) 민주노조운동의 성장

1970년 11월 13일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분신 자살.
-> 지식인, 학생들이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됨.
-> 민주화를 단지 형식적인 민주화가 아닌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됨.(민중이 주인 되는 사회 모색)
-> 학생운동가들 중 일부 선진적인 인사들이 노동운동을 위하여 노동 현장에 투신하기 시작함.

1961년 인천 도시산업선교회의 설립
1968년 강화도 심도직물 사건
1972년 동일방직에서 국내 최초로 여성이 노조지부장에 선출됨.
1973년 12월 부평4공단 소재 삼원섬유에서 외국계 회사 최초로 노조가 결성됨.
1974년 4월 반도상사 노조 결성
-> 민주노조운동
->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으로 인천이 국내 유수의 공업지대로 변신하면서 인천이 점차 민주노조운동의 성지가 됨

1976년 7월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의 "나체시위" 사건.
1978년 2월 "동일방직 똥물 투척 사건"과 동일방직 여성노동자 124명 해고.
1978년 3월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의 부활절 연합예배 시위 사건.

->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야만적인 탄압의 대표적인 사례
-> 학생들이 민주노조운동에 대해 큰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됨.
-> 노동자와 학생들의 연대가 형성되기 시작함.
->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이 주인 되는 사회를 모색하기 시작함

2, 박정희의 사망으로부터 1987년 6월항쟁까지
- 학생에서 민중(노동자)으로
- 노동자, 농민이 중심이 된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꿈꾸다
- 급진화, 과격화

1) 1980년 민주화의 봄과 광주민주항쟁

1980년 3월 전국의 각 대학에서 유신 시절 제적되었던 학생들에게 복교를 허용함.
- 인하대에서도 조용호를 비롯한 13명이 복교함.

신학기를 맞아 전국의 각 대학에서 유신에 의해 강요된 학도호국단을 해체하고 학생회를 재건.
- 1980년 3월 13일 인하대 학생회 부활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이어 4월 4일 총학생회장 선거가 실시되어 황윤철이 총학생회장에 당선됨.
- 인천대에서도 4월말 총학생회가 구성되어 홍성복이 총학생회장에 선출됨.

5월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학생회 재건 등 학내 문제에 집중하였던 학생들이 계엄해제 등을 요구하며 민주화요구 시위에 나섬.
- 인하대 총학생회 5월 7일부터 9일까지를 "민주화대행진의 날"로 규정하고 학내 시위와 가두시위에 나섬.

5월 15일 서울 지역 대학생들이 서울역앞 광장에 모여 계엄해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자진 철수함(서울역회군)
- 인하대 학생 3,000여 명이 학생총회를 개최하고 가두로 진출하여 경찰과 투석전을 벌인 후 동인천역 광장에 집결하였다가, 합류한 인천교육대학생 800여 명, 인천대학생 200여 명과 함께 전철을 타고 서울역앞 집회에 합류함.

5월 18일 0시 전두환일당 전국에 비상계엄을 확대하고 전국 각 대학에 휴교령을 내림과 동시에 군대 투입.

5월 18일 ~ 5월 27일 광주민주항쟁

5월 22일부터 30일까지 송도고등학교 출신 이교정, 이수하 등이 광주민주항쟁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전두환일당의 처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부평과 주안 일대에 살포함. 이들은 6월 동인천역 앞에서 답동 방향으로 같은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는 작업을 하다가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구속됨,

8월 10일 인천에 살면서 서울로 통학하는 학생들로 구성된 독서 모임(일명 지티) "기러기"와 "사우"의 대학생들이 광주민주항쟁을 알리고 전두환일당 타도를 촉구하는 유인물을 제작, 살포하고, "전두환 타도하자", "계엄령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학교 담에 쓰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됨. 이 사건으로 이우재, 조용호, 이정남, 권병기 등이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됨.

2) 5공화국 출범에서부터 83년 12월 학원자율화 조치까지
- 학생들만의 외로운 투쟁

1980년 10월 27일 대통령 간선제와 임기 7년의 단임을 핵심으로 하는 제5공화국 헌법이 제정, 공포됨
1981년 1월 25일 비상계엄 해제
1981년 3월 3일 새 헌법에 따라 전두환 대통령에 취임
-> 제5공화국 출범
-> 군복에서 민간복으로 복장만 갈아입은 군부독재정권

광주민주항쟁의 내면화
- 광주민주항쟁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면서 기존의 운동에 대한 반성이 일어남.
- 비조직 시민, 학생만으로는 총칼로 무장한 군부독재를 타도할 수 없음을 확인하면서 생산 현장에서 조직이 가능한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이 주체로 나설 때만이 군부독재 타도가 가능하다고 인식.
- 군부독재와의 투쟁이 유혈투쟁이 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고 수많은 희생 끝에 얻어질 민주주의의 내용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함.
-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이 주체가 된 유혈 투쟁이 성공하려면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해방이 실현되는 그런 민주 사회를 민중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민중이 주인 되는 혁명(민중민주주의 혁명)을 꿈꿈.

전두환정권의 폭압 하에 민주 세력들이 숨을 죽이면서 학생들만이 외롭게 투쟁함.
- 1980년 5월부터 1983년 12월까지 민주화운동으로 학교에서 제적된 학생들의 수는 1,363명으로 1970년대 유신독재에 의해 제적된 768명을 훨씬 능가함.
- 뿐만 아니라 그 분포도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으로 확산됨.
- 정권의 폭력적 탄압에 학생운동은 이념화되고, 지하화함.
- 학생운동과 관련 구속, 제적된 학생들 상당수가 노동 현장에 진출하는 등 직업적 운동가의 길을 모색함.
- 1981년 5월 18일 인하대학교 건물 외벽에 반정부 구호가 적혀 있는 것이 발견됨. 이 사건 수사 중 인하대학교 지하서클 “청진회”가 적발되어 홍문표, 민영수 등이 구속됨.
- 1982년 9월 23일 인천대학교 학생 김성일, 박흥민이 “전두환 군부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학내 시위를 벌이다 구속됨.
- 1982년 11월 8일 인하대학교 학생 이우청, 최진우가 학내 시위를 벌이다 구속됨.
- 1983년 10월 5일 인하대학교에서 이승만 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유인물이 살포됨. 다음날인 6일 인하대학교 학생 윤호영, 황홍규, 이기선 등이 “파쇼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학내 시위를 주동하다 구속됨. 이날 시위에서 학생들이 이승만 동상을 끌어내림.

1981년 5월 21일 인천제일교회에서 1,000여 명의 청년들이 한완상의 강연이 끝난 후 스크럼을 짜고 “전두환 파쇼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축현초등학교 앞까지 가두시위를 벌임. 이 사건으로 이민우, 강우경 등 7명이 구속됨.

3) 유화국면과 민주화운동의 활성화

1983년 12월 21일, 80년 5월 이후 제적된 학생들의 복교 허용과 학원자율화 조치 발표(소위 유화국면)

-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을 의식한 조치
- 대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유화 조치 실행
- 대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화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함.

각 대학에서 학생회를 재건하고자 하는 움직임 태동.

- **1984년 11월 9일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부활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선거를 실시하여 이광현을 총학생회장으로 선출함으로써 인하대에서 학생회가 재건됨.**
- **1985년 4월 16일 이재영이 학생들의 직접 선거로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어 인천대학교에서도 학생회가 재건됨.**

노동운동의 재건

- **1983년 10월 태평특수섬유에서 일하던 여성노동자 김용자, 김옥섭의 투쟁으로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확인된 후 블랙리스트 철폐 투쟁이 광범하게 확산됨.**
- **1984년 4월 17일 대한마이크로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됨. 80년 5.18 이후 인천에서 최초로 건설된 민주노조. 이후 민주노조 건설이 활성화됨.**
- **1984년 8월 서울대학 졸업이라는 학력을 숨기고 대우자동차에 입사(위장취업)한 송경평이 서울대학교 졸업이라는 학력이 발각되어 해고됨. 이후 위장취업이 사회적 쟁점이 됨.**

1983년 9월 서울에서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하 민청련, 의장 김근태)이 결성됨. 민청련은 5.18 이후 결성된 최초의 공개 민주화운동단체임. 이후 부문별, 지역별로 공개 민주화운동단체가 결성되기 시작하여 1985년 3월 부문과 지역을 망라한 공개 민주화운동 조직으로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하 민통련, 의장 문익환)이 결성됨.

1984년 11월 19일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이하 이사연, 의장 제정구)의 출범.

- **인천에 기반을 둔 최초의 본격적인 민주화운동단체.**
- **노동운동을 제외한 전 분야를 망라하고자 했으며, 가톨릭과 개신교, 일반 민주세력의 결집체로서 조직되었으나 주축은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운동 출신의 청년 활동가들이었음.**
- **이후 인천 민주화운동의 중심축으로 활동함.**

1985년 2월 7일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이하 인천노협, 의장 양승조)의 결성

- **1970년대 민주노조 출신 운동가들이 블랙리스트 철폐 투쟁 과정에서 고립분산적인 투쟁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조직함.**
- **70년대 민주노조 출신이 주축을 이룸.**
-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의 인천지부 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독자적이었음.**
- **인천 노동운동의 중심이었으며, 인사연과 함께 인천의 민주화운동을 주도했음.**

4) 인천5.3민주항쟁

- 사회변혁운동(민중민주주의혁명)의 확산
- 학생에서 노동자로(민중으로)

1985년 2월 12일 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의 돌풍과 개헌정국

- 김대중과 김영삼을 양축으로 하는 신한민주당(이하 신민당)이 대통령 직선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2.12총선에서 관제야당 민한당을 누르고 제1야당으로 부상
-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놓고 전두환정권과 대립

1985년 4월 16일부터 25일까지 대우자동차 파업

- 70년대 민주노조운동과 달리 남성노동자가 중심이 된 대형사업장의 파업

- 송경평, 홍영표, 이용선 등 학생 출신의 위장취업자 문제가 다시 사회적 주목을 받음

- 인천은 서울과 인접한 공업지대라는 점에서 많은 학생운동가들이 위장취업하여 공장 현장에 잠복해 있었음.

1985년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구로동맹파업

-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동맹파업으로 정치투쟁적 성격이 강함.
- 심상정 등 학생운동가들이 위장취업하여 주동

1985년 8월 25일 서울노동운동연합(이하 서노련)의 결성

- 김문수, 심상정 등 학생운동 출신 노동운동가들이 주도
-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등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을 조합주의, 경제주의라고 비판하면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정치 전망에 기초한 정치투쟁을 전개할 것을 주장.
- 선진적인 노동자들이 노동자 대중을 선도하며 정치투쟁을 이끌어야 한다는 선도투쟁론 주창.
- 민통련, 민청련 등 민주화운동단체를 노동자의 지도를 받아야 할 소부르조아 운동단체로 규정, 비판.

- 학생운동 출신 위장취업자들이 대거 몰려 있던 인천도 그 영향을 받아 인천노협이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이하 인노련)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재창립됨.

- 서노련과 인노련이 이후 급진적 노동운동을 이끌며 노동자가 중심이 된 사회 변혁을 주창(민중민주주의혁명)

개헌 문제를 둘러싼 민주화운동세력의 분열

- 민통련, 인사연 등은 야당인 신민당과 독자성을 유지한 연대를 주장하며 민주헌법을 주장.
- 서노련과 인노련은 신민당을 배격한 독자노선을 주장하며 삼민헌법(민중민족민주헌법)을 주장.

1986년 3월 서울대에서 구국학생연맹이 결성됨.

- 기존의 반독재투쟁 중심의 운동노선에서 반미투쟁을 중심으로 한 운동 노선 주장.
- 학생운동 진영이 반미투쟁을 강조하는 소위 NL진영과 기존의 반독재투쟁과 계급문제를 중시하는 PD진영으로 양분됨. NL과 PD라는 진영 문제는 이후 학생운동을 넘어 민주화운동 전반으로 번져나갔음.

1986년 4월 28일 “양키 고 홈”을 외치며 전방입소훈련 거부투쟁을 주도하던 서울대생 김세진과 이재호가 분신자살.

1986년 4월 30일 신민당 총재 이민우 청와대에서 전두환과 여야영수회담.

- 국회에서 정치일정에 합의하면 임기 내 개헌도 반대하지 않겠다고 전두환과 합의.
- “소수이겠지만 좌익학생들을 단호히 다스려야 한다”며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묵인하겠다는 입장 표명.
- 민주화운동 진영 내부에 신민당에 대한 분노가 만연함.

인천5.3민주항쟁

- **1986년 5월 3일 오후 2시에 주안 시민회관에서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인천경기지부 결성대회가 예정되어 있었음.**
- **그 대회가 예정된 지역에 수도권 일대의 민주화운동세력이 총집결하였음.**
- **12시 30분경부터 주안 사거리 일대에서 가두집회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대회 예정 시각인 2시가 되기도 전에 주안사거리 일대가 시위대로 가득 참.**
- **1시쯤 시민회관 앞에 있던 민정당 지구당사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화염이 치솟음.**
- **김영삼, 이민우 등 신민당 지도부는 신민당을 비난하며 입장을 가로막는 시위대 때문에 입장을 포기함. 따라서 결성대회는 자동으로 무산됨.**
- **민주화운동세력 내부에서도 서로 의견의 차이 때문에 통일된 행동을 이루지 못하고 각기 따로 집회를 열며 각기 다른 구호와 주장을 쏟아냈음.**
- **오후 5시가 되면서 그동안 수수방관하며 시위대의 외곽 진출만 봉쇄하던 경찰이 적극적인 진압에 나서면서 6시쯤 시위가 진압됨.**
- **전두환정권은 이 사건을 좌경용공세력에 의한 체제전복 기도로 몰고 가면서 민주화운동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착수함.**
-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 중 129명이 형법115조 소요죄로 구속되고, 민통련과 인사연 관계자 등 60여 명이 지명수배되었음.**
- **1980년 5월 광주민주항쟁이 실패로 끝난 후 최대의 시위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천의 민주화운동은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을 받음.**

5) 6월항쟁

- 독자성, 선도투쟁에서 대동단결, 대중과 함께로

인천5.3민주항쟁이 실패로 끝난 후 민주화운동세력 내부의 자기 성찰

- 80년 전반기 민주화운동이 급진화, 과격화한 것은 근본적으로 광주민주항쟁 진압 과정에서 보여진 전두환정권의 야만성, 폭력성에서 기인함.
- 운동가 이전에 사람이 되라는 품성론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작은 차이를 강조하기보다는 큰 목표를 함께하자는 대동단결론이 대세를 형성하기 시작함.
- 선진적인 활동가 위주의 선도투쟁론 대신 국민 대중과 함께하는 투쟁이 강조됨.
- 노동자 대신 국민 대중, 시민이 주목을 받게 됨.

부천서 성고문 사건

- **인천5.3민주항쟁 수배자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부천경찰서 형사 문귀동이 대학생 출신 해고노동자 권인숙을 성고문하는 사건 발생**
- **1986년 7월 2일 인천지역 구속자 가족 30여 명이 부천경찰서에 몰려가 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임.**
- **7월 7일 답동 가톨릭회관 5층 강당에서 인사연과 인천교구 가톨릭청년회 등 6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 가운데 “부천경찰서 여대생 성고문 추행사건 규탄대회”가 열림.**

- 7월 30일에는 부천 심곡1동성당에서 “성고문 추방과 인권회복을 위한 미사”가 개최됨.
- 인천5.3민주항쟁으로 많은 활동가들이 구속, 수배되어 인사연, 인노련 등 기존 민주화운동단체가 활동이 미비해진 공백을 메꾼 것은 인천의 종교계와 구속자 가족들이었음.

1987년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다가 물고문으로 숨진 사건 발생

- 1987년 1월 25일 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등 개신교 단체들 공동주최로 일꾼교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동인천역으로 침묵시위 전개.
- 2월 7일 인천교구 사제단 답동 가톨릭회관에서 “고 박종철군 국민추도회” 개최.
- 같은 날 감리교 인천주안지방회가 선린교회에서 교인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도식 개최
- 3월 1일 기독교장로회 경인노회 인천시찰회가 인천교회에서 “3.1절 기념 및 고문추방을 위한 연합예배” 거행.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이른바 4.13호헌조치 발표.

- 4월 30일 인천교구 사제단 답동성당에서 “민주개헌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기원하는 미사”를 마친 후 가톨릭회관 6층에서 5월 6일까지 단식기도에 돌입.
- 5월 4일 기독교 인천지역 인권선교위원회도 인천제일감리교회에서 목회자 20여 명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
- 5월 6일 인천교구 사제단 답동성당에서 신자 3,000여 명과 단식기도 폐회 미사를 하고, 가톨릭회관 정문 앞에서 노천기도회 개최
- 5월 7일 인하대학교 교수 28명 개헌을 요구하는 시국성명 발표

1987년 5월 18일 김승훈 신부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은폐조작되었음을 폭로.

1987년 5월 27일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 출범

- 6월항쟁 기간 동안 전국의 민주화운동을 주도함.
- 전국에서 국본 지부가 결성되어 함께 행동함.
- 그러나 인천은 인천5.3민주항쟁으로 활동가들이 대거 구속, 수배된 후유증으로 인천 국본이 결성되지 못함.
- 대신 1987년 5월 24일 “장기집권 음모 분쇄를 위한 인천지역공동대책위원회”에서 “호헌분쇄 및 민주개헌을 위한 인천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로 이름을 바꾼 공대위가 그 역할을 대신함.

인천의 6월항쟁

- 공대위 5월 17일부터 24일까지를 광주항쟁 계승기간으로 선포하고 24일 “광주영령 추모 및 민주개헌을 위한 인천지역 시민대회”를 부평역 광장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나 경찰이 원천봉쇄함. 시민, 학생들이 백운역 고가도로에서 시위를 벌이며 대열을 형성하여, 부평시장 로타리, 부평1동성당, 백마장 입구까지 가두시위 전개.
- 6월 10일 공대위 전국적인 계획에 맞춰 부평역 앞에서 “6.10인천시민대회” 개최.

오후 6시 부평역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것을 신호러 택시 기사들이 경적을 울려 대회의 시작을 알림. 7시가 지나며 인근 공단의 노동자들이 퇴근하며 합류하였고, 오후 9시경 3,000여 명의 시위대가 백마장 입구에 집결하여 가두시위를 전개함. 이날의 시위로 6월 12일 공대위 공동대표 인사연 집행국장 안영근을 비롯

한 3명이 구속되고, 5명이 지명수배됨.

- 6월 17일 주안1동성당에서 “6.10보고대회”가 열림. 이날 인하대, 인천대 학생 2,000여 명이 동인천역을 점거하고 연좌농성을 벌이다가 보고대회가 예정된 주안1동성당으로 행진. 보고대회가 끝난 후 사제단과 수녀들이 앞장선 가운데 시민회관으로 진출하여 시민대회를 갖고 “시민불복종운동”과 “최루탄 발사 규탄”을 결의하고 해산. 그러나 수천 명의 시민들이 석바위 방면으로 행진하며 가두시위를 계속하다가 밤 12시가 넘어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됨.

- 6월 18일 국본이 “최루탄 추방의 날”로 선포한 것에 발맞추어 인천에서도 두 곳에서 시위가 전개됨. 오후 6시 동인천역 앞에서 300여 명의 시민, 학생들이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시위에 돌입하여 오성극장과 송림로타리 방향으로 진출. 2,000여 명으로 늘어난 시위대는 제물포 방향으로 행진하다가 경찰에 저지되자 수봉공원을 넘어 도화오거리에서 경찰에 맞서 격렬한 시위 전개. 오후 6시 부평에서도 부평역앞 광장과 백마장 입구에서 동시에 시위가 전개되어, 개선문예식장 앞에 모인 1만여 명의 시위대가 11시 40분경 전두환 화형식을 거행함. 이후 청천동 시위대와 개선문예식장 앞 시위대가 결합하여 2시까지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해산됨.

- 6월 19일 인하대와 인천대 학생 2,000여 명이 각기 교내에서 “최루탄 추방 인천지역 시민대회 경과보고”를 개최하고 교내 시위 전개.

- 6월 24일 동인천역앞에서 시민, 학생들이 가두시위 전개.

- 6월 26일 부평역과 백마장 입구에서 범시민평화대행진이 개최됨. 경찰이 진압하자 시민, 학생 2,000여 명이 10시 30분경 석바위에 재집결하여 가두시위 전개.

6월 29일 민정당 대표 노태우가 직선제개헌 수용, 시국사범 석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위 6.29선언 발표하면서 6월항쟁 막을 내림.

3, 6월항쟁 이후 김영삼정권의 성립까지

- 민중(노동자)에서 시민으로, 혁명에서 개혁으로
- 민주화운동에서 시민운동으로

1) 7, 8월 노동자대투쟁

- 1987년 6월 5일 현대엔진의 민주노조 건설로 시작된 노동자들의 투쟁이 6.29 이후 변화된 정세를 맞이하여 울산을 넘어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됨.

- 인천에서도 7월 1일 선일연마 노동자들의 파업농성과 7월 11일 부평 갈산동 소재 한독금속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결성을 계기로 인천 전지역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개됨.

- 노동자들은 민주노조 건설과 임금 인상 등 노동 조건 개선 투쟁에 주로 힘을 기울였음. 7월에는 주로 공단 지역의 중소 사업장에서 투쟁이 전개되었으나, 8월 들어 대우중공업 인천 공장, 대우자동차, 대우전자 등 대공장 노동자들도 투쟁에 참가하기 시작했음.

- 1987년 6월 인천의 노동조합은 107개에 불과했으나 노동자대투쟁 기간 동안 97개의 노동조합이 새로 건설되어 9월 현재 노동조합 수는 204개에 달함. 그리고 이 기간 중 노동쟁의가 발생한 사업자 수는 확인된 것만 155개에 달함.

- 이 투쟁을 발판으로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인노협)가 창립될 수 있었음.

2) 대통령 선거의 패배

- 87년 12월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화운동진영의 의견은 대략 세 갈래로, 김대중에 대한 비판적 지지론, 민중독자후보론, 야권후보단일화론이었음.
- 후보 단일화의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후보단일화론은 유야무야됨.
- 비판적 지지론은 소위 NL진영에서, 민중독자후보론은 PD진영에서 주장하였음.
- 백기완 후보가 중도 사퇴하면서 민중독자후보론은 실현되지 못했으나, 두 입장의 의견 차이는 끝내 해소되지 못했음.
- 노태우가 당선되면서 두 입장 간에는 감정적 앙금까지 생겼음.
- **독자후보론의 핵심 세력 중 하나가 6월항쟁 중 부평의 가두집회 현장에서 출범을 알린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이었음.**
- **따라서 인천에서의 NL진영과 PD진영 간의 갈등은 다른 지역보다 더욱 첨예했음.**

3) 대중운동의 성장과 민주화운동의 재정비

대중운동의 성장

- 6.29선언으로 개정된 새로운 헌법에 따라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보장되면서 그동안 억눌려 왔던 대중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음
-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1990년 1월 한국노총과 별도로 전국노동조합협의회(1995년 11월 결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모체, 이하 전노협)가 결성되었고, 1990년 4월에는 농민의 권익 보호와 민족자주경제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결성되었음.
- **이에 따라 인천에서도 1988년 6월 18일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가 출범하였고, 6월 인천시철거민협의회가 발족하였으며, 10월 인천민중문화운동연합이 결성되었고, 10월에는 천주교인천교구사회운동연합이, 11월에는 인천지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가 출범하였음. 1989년 2월에는 인천여성노동자회와 주민운동을 담당하는 주민회가 창립되었으며, 5월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설립됨.**

민주화운동의 재정비

- 87년 대통령선거에서 비판적지지 결정을 내린 후 민통련은 더 이상 민주화운동 전체를 대표할 수 없게 되었음. 그에 따라 민주화운동의 새로운 구심을 세울 목적으로 민통련은 자진 해산하고 대신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이하 전민련)이 결성됨. 전민련은 5공비리 청산투쟁, 광주학살 규명운동, 1989년 문익환 목사의 방북을 계기로 조성된 공안통치 분쇄투쟁 등을 전개함. 그러나 전민련에는 전노협, 전농 등 대중운동단체가 합류하지 않았음. 1992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NL과 PD 사이의 노선 대립이 나타나면서, 독자정치세력화를 주장하는 PD진영이 대거 전민련을 탈퇴하자, 전민련은 더 이상 민주화운동진영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됨. 이에 전민련은 해산하고 전노협, 전농 등 대중운동단체가 중심이 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이 출범함. 전국연합은 14개 대중단체와 13개 지역 조직이 결합한 해방 이후 최대의 운동 조직이었음.
- **인천에서도 그 흐름에 발맞추어 전민련의 출범 이전인 88년 9월 인천지역민족민주운동연합(이하 인민련)이 결성됨. 인민련은 인사연을 위시한 인천지역의 민주화운동단체를 총망라하였으며, 전민련의 방침과 호흡을 함께함.**

전민련이 해산하고 새로이 전국연합이 출범하는 데 발맞추어 인천에서도 인민련이 해산하고, 대신 1992년 2월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이하 인천연합)이 출범함. 인천연합에는 인노협, 인천지역대학생협의회, 전교조 인천지부 등 7개 대중단체가 참가함.

4) 1992년 14대 총선과 민주화운동의 분열

- 1992년 3월 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NL과 PD의 입장이 또 갈림. NL은 범민주대연합의 입장에서 사실상 민주당을 지지했고, PD는 민중당을 창당하여 독자 후보를 냄. 이로써 민주화운동은 끝내 분열되어 서로 대결하는 양상이 됨.

- 노동운동이 활발했던 인천은 그만큼 PD진영의 세력이 강력하여 NL과 PD의 갈등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 심했음. 그 결과 14대 총선에서도 인사연을 비롯한 NL진영에서는 범민주단일후보를 추진하여 전체 7개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 6명, 민중당 후보 1명을 범민주단일후보로 추천했고, PD진영에서는 민중당 후보 지지를 천명함. 그 결과 7개 선거구에서 민중당 후보 5명이 출마하여 전원 낙선함.

5) 민주화운동의 쇠퇴와 시민운동의 등장

민주화운동의 쇠퇴

- 14대 총선 이후 NL은 점점 더 민주당쪽으로 기울었고, PD는 계속 독자 진보정당의 길로 나감. 이 분열은 끝내 해소되지 못했고 1992년 12월의 대통령선거에서도 그대로 재현됨. 이런 과정 속에서 민주화운동은 점점 더 힘을 잃어감.
- 그 과정에서 많은 운동가들이 정치권으로 진출하면서 민주화운동의 비중이 현저히 약화되기 시작함.
- 6.29 이후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정권의 국민적 정당성이 확보됨. 따라서 정권은 더 이상 타도의 대상이 아니게 됨. 이는 92년 대통령선거에서 김영삼이 당선되면서 더욱 강화됨. 따라서 민주화운동 진영의 정권 타도 운동은 점점 더 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렵게 됨. 민중민주주의혁명 주장은 더더욱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됨. 대신 선거가 중요시되면서 일시에 모든 것을 바꾸는 혁명보다는 선거를 통해 하나씩 바꿔나가는 개혁이 주목을 받게 되었고, 선진적인 노동자가 아닌 시민대중이 중요시됨.
- 1980년대 말 일어난 소련을 위시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사회주의 이론을 비롯한 전통적인 변혁 이론에 대한 광범한 회의를 불러일으키면서 혁명에 대한 회의는 더욱 짙어감. 그에 따라 노동자보다는 시민이 더욱 주목을 받게 됨.
- 대중운동이 성장하면서 대중 스스로가 운동의 주체가 되자, 이론으로 무장한 학생운동 출신 활동가들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짐. 그에 따라 많은 운동가들이 운동현장을 떠나면서 민주화운동은 더더욱 위축됨.

시민운동의 등장

- 민주화운동이 위축되면서 대신 그 자리를 메꾸고 나타난 것이 시민운동임.
- 1989년 창립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1994년 창립된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 등이 그 대표적인 운동단체임. 이들 단체가 기존의 민주화운동단체와 다른 것은 우선 민중이나 노동자가 아닌 시민의 단체임을 표방한 것임. 그리고 투쟁을 표방하지 않고 참여를 표방한 것임. 따라서 혁명이 아닌 개혁을 추구한 것임.

- 인천에서 최초로 결성된 시민운동단체는 1989년 6월 결성된 목요회임. 신부, 목사를 비롯하여 교수, 변호사, 의사, 약사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됨.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으나 정치적 논의를 배제하였음. 이후 선인학원 정상화 운동, 계양산 살리기 범시민운동, 굴업도 핵폐기물처리장 반대 운동 등을 주도하며 인천 시민운동의 성장을 주도함.

- 인천의 시민운동은 선인학원 문제, 계양산 골프장 건설 문제, 굴업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문제 등 전국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장하였음. 그 중 특히 계양산 살리기 범시민운동은 계양산 골프장 건설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계양산 살리기 범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문제 해결의 주체로 시민을 세움으로써 인천의 시민운동이 자리잡아가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음.